



아주

위 QR코드를 스캔하면 <아주 좋은 날> 63호 표지를 장식한 이타미 준 건축가의 작품을 모션 그래픽과 ASMR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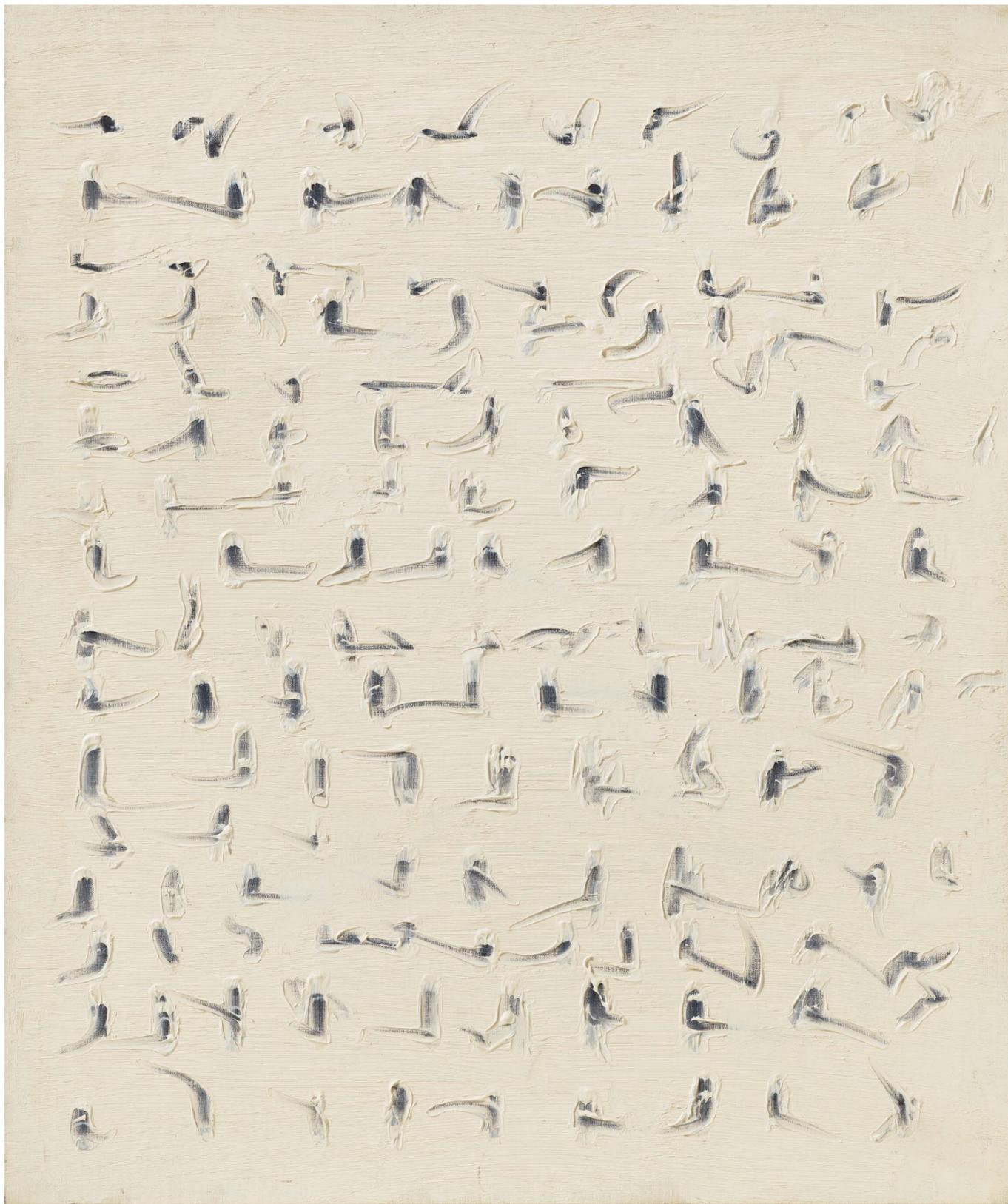
9 772508 522001
ISSN 2508 - 5220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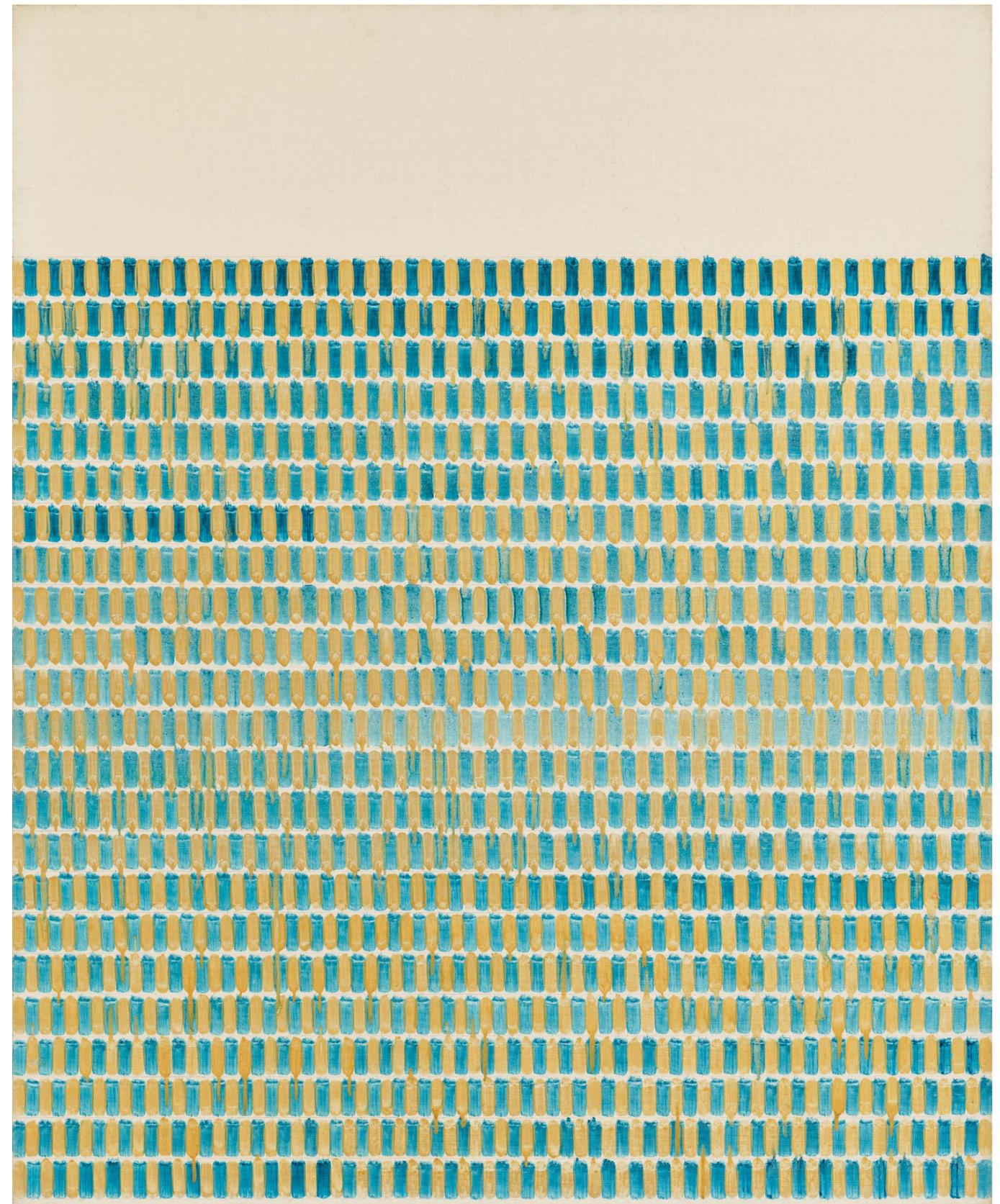
AJU BIENNIAL MAGAZINE

2024 AUTUMN - VOLUME 63

아주
좋은 날



Work, 1994, Oil on canvas, 116.7x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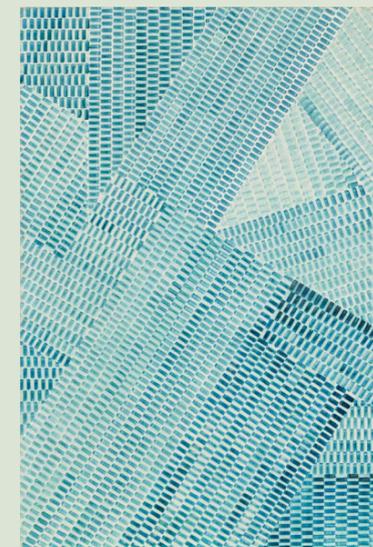


Manhattan Series, 1995, Oil on canvas, 162x130.3cm

Contents

Inspiration	Exploration
4 prism architecture 세계 최초의 오디오 뮤지엄 art 미디어 전시장이 된 인천국제공항 design 도시의 표정을 만들다 culture 새로운 화장실 문화 조성 프로젝트	28 world report 기후 재난 시대의 건축 32 lifestyle archives 다양성의 존중, 베를린의 비건 라이프 36 anyway, 나를 위한 달리기 40 openmind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때 44 AJU inside 아주IB투자 50주년 48 AJU focus 아주의 CVC 52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6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12 forecast 지상의 화성, CHAPEA 프로젝트	
16 cityscape 배터리 파워스테이션, 21세기 런던의 진화를 이끈다	
20 interview 새로운 역사를 쓰다, 최경주 골프 선수	
24 art&more 디지털 암흑 시대가 온다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과 타오르는 여름을 지나며, 우리는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성장의 시간과 함께 성숙의 시간을 마주할 때입니다. 과거 산업 시대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대부분 성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전적 성찰이 있는 성숙이 수반되어야 수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주좋은날> 63호에서는 성숙해진 새로운 세대가 생명력을 뽐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려 합니다. 유기적 순환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Cover Artist

유동룡 Itami Jun (1937-2011)

이타미 준은 재일 한국인 건축가로 본명은 유동룡(虞東龍)이다. 일본 시즈오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여행과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건축에 입문했다. 1964년 무사시 공업대학에서 건축학 학사 학위를 받고, 1970-1980년대에 한국을 답사하며 한국의 고유한 정취에 빠져들어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며 우리의 문화, 예술, 공간에 대해 탐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소재 간의 대비를 통해 조화와 대립을 건축에 녹여냈으며, 풍부한 재료의 언어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물의 감촉을 조형적으로 구현해냈다. 그는 "건축은 나와 새로운 세계를 매개하는 그 무엇"이라고 설명했고, 건축을 위한 드로잉과 그의 철학이 담겨 있는 회화작업을 바탕으로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이타미 준은 건축의 본질, 즉 '관계'의 본질에 당기를 추구하는 이 시대를 열어준 진정한 종합예술가다.

자료 제공

ITM YOO EHWA ARCHITECTS Co., Ltd.

Front Cover

Manhattan Series, 1995, Oil on canvas, 193.9×130.3cm

세계 최초의 오디오 뮤지엄, 오디움

서울 서초구 구룡산 남쪽 기슭에 이르면, 주변 경관 속에서 독특하게 빛나는 건축물이 눈에 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하얀 깃털을 두른 듯 은은한 광택을 뽐어내는 이 건축물은 다가갈수록 그 정교함에 감탄을 자아내게 된다.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Audeum)'은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구마 겐고의 작품으로 자연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이 자리하는 장소와 행복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의 독창적인 건축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소리의 체험이라는 새로운 문화예술 장르를 전파하고자 하는 박물관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오디움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수준 높은 음향 콘텐츠를 제공하는 내부의 기능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설계를 자랑한다.

연면적 1만 1,009㎡ 규모의 오디움은 전시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0m에 이르는 알루미늄 파이프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약 2만 개의 알루미늄 파이프는 외벽에 촘촘

히 배치되어 빛이 숲에 스며드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자연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한 구마 겐고의 건축 철학이 잘 드러난다. 입구를 지나면 편백나무 향이 가득 퍼지며 시각, 후각, 청각을 순차적으로 자극하는 건축적 의도가 드러난다. 전시실 벽은 나무로 단차를 두어 흡음력을 높이고, 지하 2층 라운지에서는 웨스턴 일렉트릭(Western Electric)사의 미러포닉(Mirrophonic)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해 부드럽고 입체적인 음향을 만들어낸다.

오디움은 1877년 유성기 발명 이후 150년간의 오디오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전문 사립 박물관이다. 방대한 빈티지 오디오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7개의 전시실과 2개의 특별 전시실, 액시트 갤러리를 지나 지하 2층 라운지에 다다르면 10만여 장의 LP가 전시되어 있다. 오디움의 가장 큰 매력은 관람객이 단순히 전시된 오디오 기기를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오디오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삶을 살아온 관람객들은 자연의 모습을 닮은 오디움에 방문해 뜻하지 않은 치유를 경험한다. 구마 겐고는 이 공간에 대해 "관람객이 건축물을 먼저 체험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후에 소리에 다다르도록 설계했다"라고 설명하며 "이곳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질감과 함께 빛, 바람, 향기를 경험하며 청각을 통해 치유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디움은 전시품 컨디션 유지를 위해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단 3일만 문을 연다. 관람은 사전 예약을 해야 가능하며, 관람객은 전문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더욱 깊이 있는 오디오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1 오디움 외부 전경.

2 라운지 전경.





미디어 전시장이 된 인천국제공항

공항은 사람들의 설렘과 기대가 어우러져 언제나 활력이 넘친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낯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모두가 미지를 탐험하는 여행자라는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항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바로 예술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공항을 전시 공간으로 변모시켜 한국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를 예술 관광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여행객들에게 신선하고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는 목적으로 개최한 미디어 전시 <기기 밖의 유령(Ghost Out of the Machine)>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 발전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변화하는 인간의 의식 체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전시 제목은 영국 철학자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이 데카르트의 정신-육체 이원론을 비판하며 만들어낸 개념 '기기 속의 유령'을 변형한 것이다. 길버트 라일은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의 정신은 기계 안의 유령처럼 몸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신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것이라면, 인간을 압도하는 기술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AI에 의해 생성된 기계의 자아', '스마트폰과 결합된 인간의 정신', '가상세계에서 생성되는 몸 없는 존재들' 같은 새로운 정체성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8명의 신진 작가들은 의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기 다른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기술이 우리의 감각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공간적 환상을 만들어내는지를 실험한다. 전시 작품은 상희 작가의 '원룸바벨', 한지형 작가의 'They Cannot Touch Her', 박운주 작가의 'Acid to York', 김희천 작가의 '더블

포저', 최찬숙 작가의 'The Tumble', 추수 작가의 '달리의 에이미', 박민하 작가의 'Shadow Planet', 전소정 작가의 '싱코피' 등이며, 이들 작품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젊은 작가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작품은 스크린에 담겨 여행객의 동선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추수 작가의 '달리의 에이미' 시리즈는 작가가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느끼는 '이별의 애뜻함'을 담고 있는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마주한 이 시대 예술가의 역할을 질문하는 작품이다. 또 전소정 작가의 '싱코피'는 전시장에서 출발해 먼 곳으로 여정을 떠나는 AR 씨앗들의 모험을 담은 작품으로, 씨앗이 여러 장소에 흩뿌려져 동시에 존재하며 국경을 가로지르는 비가시적인 존재들을 비춘다.

거대한 규모와 첨단 시설을 내세웠던 세계적인 공항들이 이제 앞다투어 자신만의 또 다른 차별점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의 핀란드식 사우나와 같이 각 나라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여행객에게 쏠쏠한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여행지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개최하는 등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한다. 국적, 인종, 나이를 불문한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 인천국제공항이 앞으로 K-팝을 넘어 K-아트를 전파하는 '아트 포트(art+port)'가 되기를 바란다.

도시의 표정을 만들다

도시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공공 예술은 그곳에 늘 존재하기에 주변을 수없이 지나쳐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각 작품의 존재감이 독특하게 다가온다. 신진 작가부터 세계적인 작가, 그래피티에서 대형 조형물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공 예술이 모여 있는 미국 뉴욕은 특히 공공 예술에 심혈을 기울이며 형성된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센트럴 파크와 하이 라인 등 뉴욕 거리 곳곳에 보이는 크고 작은 조형물은 뉴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며 이 도시를 자꾸 찾게 만드는 매력을 발산한다.

2024년 4월 뉴욕 맨해튼 가먼트 지구(Garment District) 한가운데에 해체된 고무 타이어로 엮은, 10m에 달하는 거대한 작품이 등장했다. 동네를 산책하는 사람, 고층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직장인, 뉴욕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의 시선이 작품에 집중되었다. 2024년 11월 1일까지 설치하는 이 작품은 미국 뉴저지 출신 예술가 차카이아 부커(Chakaia Booker)가 설계한 '셰이브드 포션(Shaved Portions)'이다. 본래 오클라호마 현대미술 센터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져 그만의 새로운 의미를 더하며 도시의 표정을 재구성한다. 벌집 모양 패턴은 장난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반듯한 건물들과 대비되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뉴욕의 풍경에 스며든다.

차카이아 부커는 매립지와 수리점에 버려진 타이어를 주재료로 작품 활동을 한다. 타이어를 자르고 비틀고 엮어서 새로운 형태의 질감을 만들어내면서 환경, 인종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탐구를 이어간다. 작가는 타이어 같은 산업 재료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다양한 색조의 고무를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고무의 물리적 마모를 노화의 흔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을 깊

이 있게 탐구한다. 작가의 최신작 '셰이브드 포션' 또한 이리저리 부딪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타이어를 자르고 엮어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뉴욕의 거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셰이브드 포션'과 같은 공공 예술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작품과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 예술은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담긴 작품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동시에 작가의 정치적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공공 예술은 때때로 비판의 여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공공 예술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예술과 일상 사이의 쌍방향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예술 장르다. 특정 장소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예술은 계급, 교육 수준, 인종을 초월해 광범위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공공 예술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반대로 작가들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시민들과의 교감을 선사해 다면적인 작업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던 벤치, 건물에 그려진 그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역의 문화가 녹아 있는 작품일 수 있다. 도시를 다채롭게 물들이는 공공 예술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평범한 일상이 예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셰이브드 포션'은 뉴욕 맨해튼 39번가와 40번가 사이의 가먼트 지구 브로드웨이 광장에 있다.



Photo: © Chakaia Booker and David Nolan Gallery



새로운 화장실 문화

구성 프로젝트

- 1 화장실 외벽을 투명한 유리로 설계하여 청결과 안전을 지키는 반시계류의 '모호한 공간'.
- 2 도시의 분수이자 음수대 역할을 통해 소규모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 후지모토 소우의 '용기와 분수'.
- 3 버섯 모양으로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는 이토 도요의 '세 개의 버섯'.
- 4 음성 명령으로 사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 사토 가즈의 비접촉 화장실 '하이 토일렛'.

거리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되는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종종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부족하거나 설계가 비효율적일 때 금세 악취의 온상이 되곤 한다. 단순한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시 생활의 핵심적인 고민거리로 자리 잡은 공중화장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일본의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가 그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투명 화장실, 버섯 모양 화장실, 대합실 형태 화장실 등 도쿄 시내 곳곳에 등장한 파격적인 공중 화장실은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새로이 거듭나며 공공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약어 '4K'가 있다. 일본어로 더러움(Kitanai), 어두움(Kurai), 무서움(Kowai), 냄새(Kusai)를 뜻한다. 일본의 비영리단체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이처럼 공중화장실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선보이고자 안도 다다오, 구마 겐고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16명과 함께 도쿄 내 17곳에 매력적인 공중화장실을 건설했다.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는 '공공'의 의미를 되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공중화장실은 과연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가?' 여기서 모두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성소수자, 재해 피해자 등을 포함한다. 일본재단은 건축가들에게 각 공중화장실의 한 칸만큼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설계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함께 인공 배설관 이용자를 위한 장루 위생 시설, 그리고 기저귀 테이블 등을 모든 성별의 화장실에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설계자들은 '차별 없는 화장실'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더해 기본적인 화장실 기능을 넘어 음수대, 대합실 형태를 결합해 거리 산책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또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도쿄 요요기에 위치한, 건축가 반 시계류의 '모호한 공간'은 다양성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목적을 잘 드러낸다. 화장실 외벽을 투명한 유리로 제작해 문을 잠그기 전에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지만 문을 잠그는 순간 불투명해져 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위해 고안한 디자인이자 해가 지면 아름다운 조명처럼 공원을 따뜻하게 밝힌다. 요요기에 위치한 또 다른 화장실, 후지모토 소우의 '용기와 분수'에는 높낮이가 다양한 곡선의 음수대를 설치해 모든 연령층의 행인이 함께 물을 마시며 매번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같은 공동 이용 공간은 차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디자인으로 남기 십상이다.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는 인식 변화와 예술 측면에서 수준 높은 공공 디자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간 화장실에서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상의 화성,

CHAPEA 프로젝트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화성으로의 여행은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소재였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은 이 붉은 행성을 테라포밍해 인간이 장기간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글. 박재식

2023년 6월 25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실험 시설에 4명의 남녀가 입장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그곳에 갇혀 나올 수 없었으며, 단순히 공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지내야 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사람을 만날 수도, 편지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야 했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외부와 연결할 수 있었지만 메시지가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20분 이상 소요되었다. 만약 이곳이 감옥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감옥이 또 있을까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설에 갇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외부와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큰 악영향을 미칠 사악한 범죄자들이었을까? 아니다. 이곳은 감옥도, 갇힌 4명의 사람들이 무서운 악당도 아니었다. 이곳은 '차피(CHAPEA)'라고 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실험 시설이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대원들은 378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 생활하며 연구에 임했다.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는 과학자들은 종종 감옥과 닮은 환경을 조성해 실험을 하곤 한다. 이는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선 안에서 오랜 시간 갇혀 지내야 하는 현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거리, 시간, 각도에 대한 실험

지구와 가장 가까운 국제 우주 정거장(ISS)까지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돌아온 이소연 박사의 회고를 들어보면, 당시 탑승한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은 옆자리 대원과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은 곳이었다고 한다. 달까지는 또 어떤가.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온 우주 비행사들은 2박 3일 동안 좁은 우주선에 갇힌 채 우주를 헤쳐나가야 했다. 그나마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40만 km가 넘지 않지만, 다른 행성까지 간다면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한다. 그나마 가장 만만한 행성이라고 하는 화성까지는 족히 6,000만 km에 가까운 거리다. 만약 아폴로 우주선쯤 되는 성능으로 화성까지 간다면 반년 이상 갇혀 지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화성까지 가는 길에는 우주선 안에서 오래 버텨야 한다는 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화성과 지구 사이의 각도다.

세종이 편찬한 『칠정산』에는 화성과 지구의 각도에 관한 당대 학자들의 의문이 담겨 있다. '칠정산'은 7개의 중요한 물체를 계산하는 방법이란 뜻으로 이 책에서는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언제 어디서 보이는지 계산해내는 방법을 연구했다. 『칠정산』을 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이유는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성과 금성은 오랜 시간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지만 화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은 언뜻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싶을 정도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 속에 숨어 있는 규

칙을 찾아내는 것은 15세기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과학을 발전시킨 이후 우리는 화성의 움직임이 왜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데 화성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구가 어디쯤 돌아가고 있을 때 화성이 어디쯤 돌아오는지, 그 위치에 따라 어떨 때는 밤하늘 이쪽에서 화성이 보이고, 어떨 때는 다른 쪽에서 화성이 보인다.

이 말은 화성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어떨 때는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멀어지기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이 화성에 간다면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시기를 택해야 한다. 그 반대 상황이라면 화성과 지구를 오가는 여행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화성과 지구의 거리가 4억 km에 달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닐 만한 연료와 자원을 실은 우주선을 만들 기란 너무나 어렵다.

다시 말해 차피 실험은 화성에서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고, 더 먼 미래에 화성으로의 이주에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지상에서 최대한 화성을 흉내 낸 시설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1년 여를 버티도록 한 것이니, 대원들이 갇혀 있던 곳은 감옥이 아니라 지상의 화성이었다. 다행히 이번 차피 실험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화성으로의 이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실험을 멈춰서는 안 된다. 우주 개발을 넘어 이 같은 지상 시험은 다른 과학 분야에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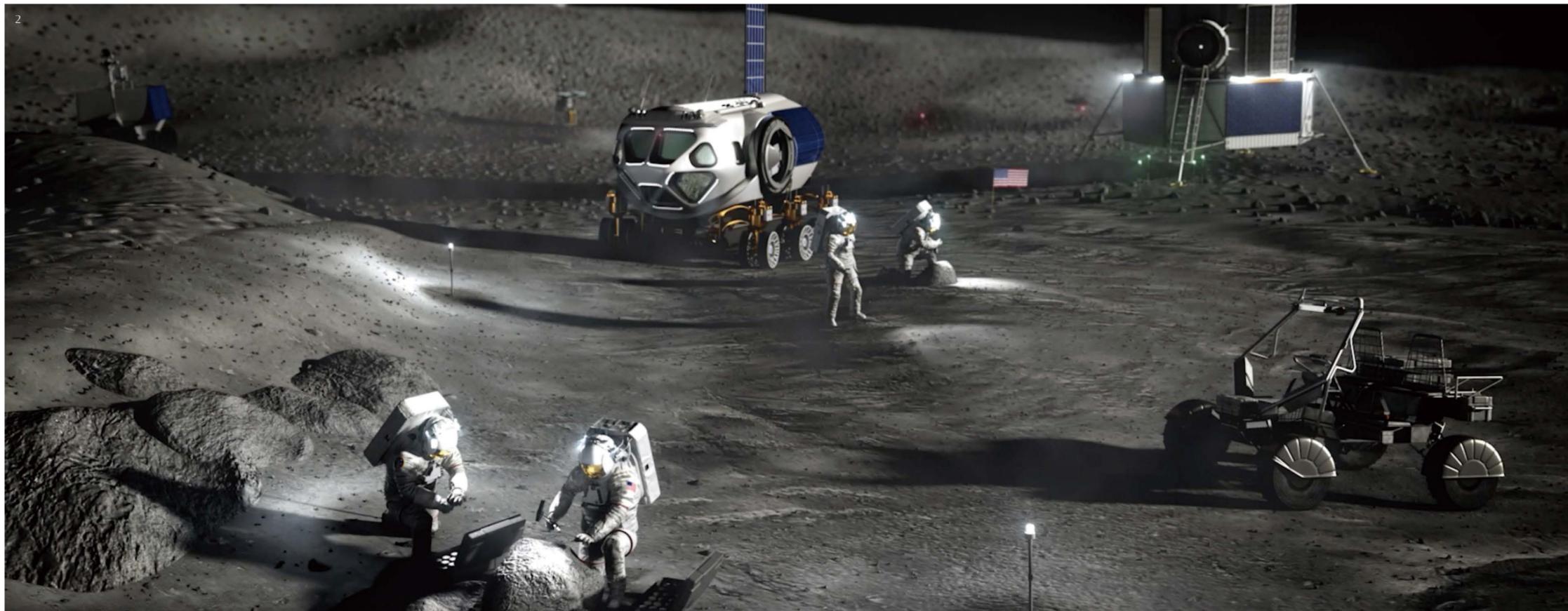
차갑고 메마른 땅에서의 농사 실험

이번 차피 실험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작업은 화성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토마토 등 농작물을 길러보려는 시도였다. 척박한 땅에서 식물을 키우는 기술을 활용해 농사가 잘되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 곡식과 채소를 기르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전해볼 수 있다. 어찌면 사막에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차피 같은 우주 탐사 연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지만, 연구 성과를 활발히 공유하다 보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몰아쳐 온다는 고비사막 같은 곳을 수풀로 덮어 먼지를 막아내는 기술이 개발될 거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실내에서 채소나 과일을 기르는 스마트팜 기술, 수직 농장 기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해 빈약한 자원으로 화성에서 농사를 성공시키는 기술을 농촌에 도입한다면 인력이 부족한 마을에서 자동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비용 면에서는 이런 실험이 우주 탐사를 위한 연구이면서 당장 돈이 적게 드는 활동이라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우주 탐사



1 임무에 투입된 대원들이 키운 토마토.
2 달 탐사 시뮬레이션. 가까운 미래에 우주 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상 실험이 많아질 전망이다.



연구라고 하면 거대한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처럼 드넓은 시설과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사업을 떠올리기 쉽다. 이런 연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에 시작하기도 어렵고 꾸준히 지속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화성의 차갑고 메마른 땅에서 어떤 식물이 잘 자랄지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는 식물의 씨앗을 뿌릴 메마른 모래흙과 그 모래흙을 담아둘 냉장고 하나면 시작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연구라면 대학생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일이다. 실험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작은 냉장고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실험을 한다면, 그 작은 냉장고가 자신만의 화성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차피 같은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갇혀 살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색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실험에서 사람의 심리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본질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지식은 꼭 화성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구와 훨씬 가까운 달이나 우주정거장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지상 실험

한국은 아직 우주로 가는 로켓 기술에서는 갈 길이 멀다. 우주 개

발 예산을 꾸준히 많이 배정하는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처럼 비용이 덜 드는 여러 가지 지상 실험을 다채롭게 시도해보는 것이 무척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2019년 경기도 고양시에 만든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DTVC라는 설비에서 달 표면과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 안에서 미래에 달 기지를 짓는 데 쓸 벽돌을 만들어본다든가 그 벽돌로 건물을 지어본다든가 하는 시범을 해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연구소 건물은 ‘달을 품은 집’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가까운 시일에 거둔 성과를 꿈꿀 수 있으면서도 멋진 분야의 연구이니만큼 앞으로 우주 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상 실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도 좋으리라 본다.

곽재식 한국의 화학자이자 소설가며,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다. KAIST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소설가로도 활동했다. 여러 과학 교양서, 전설, 미스터리에 관해 책을 썼으며, 최근에는 「심야괴담회」, 「다빈치노트」,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배터리 파워스테이션, 21세기 런던의 진화를 이끈다

런던 테이트 모던은 산업 유산을 재활용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그런데 최근 런던의 또 다른 건물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그 주인공이다. 영국 최고의 현대건축물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은 1983년에 문을 닫고 방치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다가 2000년대부터 주변의 나인엘름스 지역 재생 사업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글: 김정후



유럽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2000년,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 재단인 테이트(Tate)는 템스강 변에 방치되어 있던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Bankside Power Station)을 재활용해 테이트 모던(Tate Modern) 현대미술관을 만들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축하하며 테이트 모던이 등장했을 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 국가들은 영국 못지않게 자국의 산업 유산을 잘 관리하고 창조적으로 재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보유했음에도 테이트 모던이 단숨에 최고의 미술관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었다.

테이트 모던이 선구적 사례로 떠오른 이유는 단지 길이 155m, 폭 23m, 높이 35m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의 원형을 잘 보존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테이트 모던의 진면목은 내부 공간에서 드러난다.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터빈 홀을 그대로 비워둔 채 다목적 전시 공간과 공공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현대미술관의 내부 공간 중 이와 유사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 결과 테이트 모던은 누구나 편안하게 예술을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테이트 모던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면서 또 다른 건물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Battersea Power Station)이다.

영국 정부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런던에 여러 개의 화력발전소를 건립했다. 당시에는 주로 배로 연료와 자재를 운송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템스강 변에 자리 잡았다. 그중에서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은 런던 중심부에,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은 템스강 남서쪽에 자리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1939년에 영국의 권위 있는 건축 저널 <아키텍처럴 리뷰(The Architectural Review)>가 실시한 최고의 현대건축물 조사에서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2위에 선정되었다.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단순한 산업 시설을 넘어 시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평가받은 것은 그만큼 건축적 완성도가 높다는 의

미다. 먼저 건립한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의 외관이 호평받았기에 이를 디자인한 건축가 자일스 길버트 스콧(Giles Gilbert Scott)에게 다시 한번 의뢰해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 외관을 디자인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일스 길버트 스콧은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였으며 런던의 아이콘인 빨간색 공중전화 부스를 디자인한 것으로도 명성이 높다.)

1981년에는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이 문을 닫았고, 1983년에는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문을 닫았다. 이후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은 비교적 잘 보존되었지만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과 비교해 위치와 주변 환경이 열악했기에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았다. 미래가 불분명한 긴박한 상황에서 2000년에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이 테이트 모던으로 탈바꿈해 도시 재생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자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보다 여덟 배가량 큰 규모인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의 재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

인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템스강 변에 자리한 두 건물은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므로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했다. 결국 혜성처럼 등장한 테이트 모던이 런던의 흥물로 전락한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을 새로운 원석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화력발전소 안에 조성된 거리형 쇼핑몰

20세기 후반부터 런던은 다양한 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가시적 결과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테이트 모던처럼 버려진 산업 시설과 극심하게 쇠퇴한 주변 부지의 파격적 변화는 시민들에게 도시 재생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자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을 포함한 약 230만 m²에 이르는 유휴 부지인 나인엘름스(Nine Elms) 지역이 런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산업 지대에 자리한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테이트 모던처럼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예상했다.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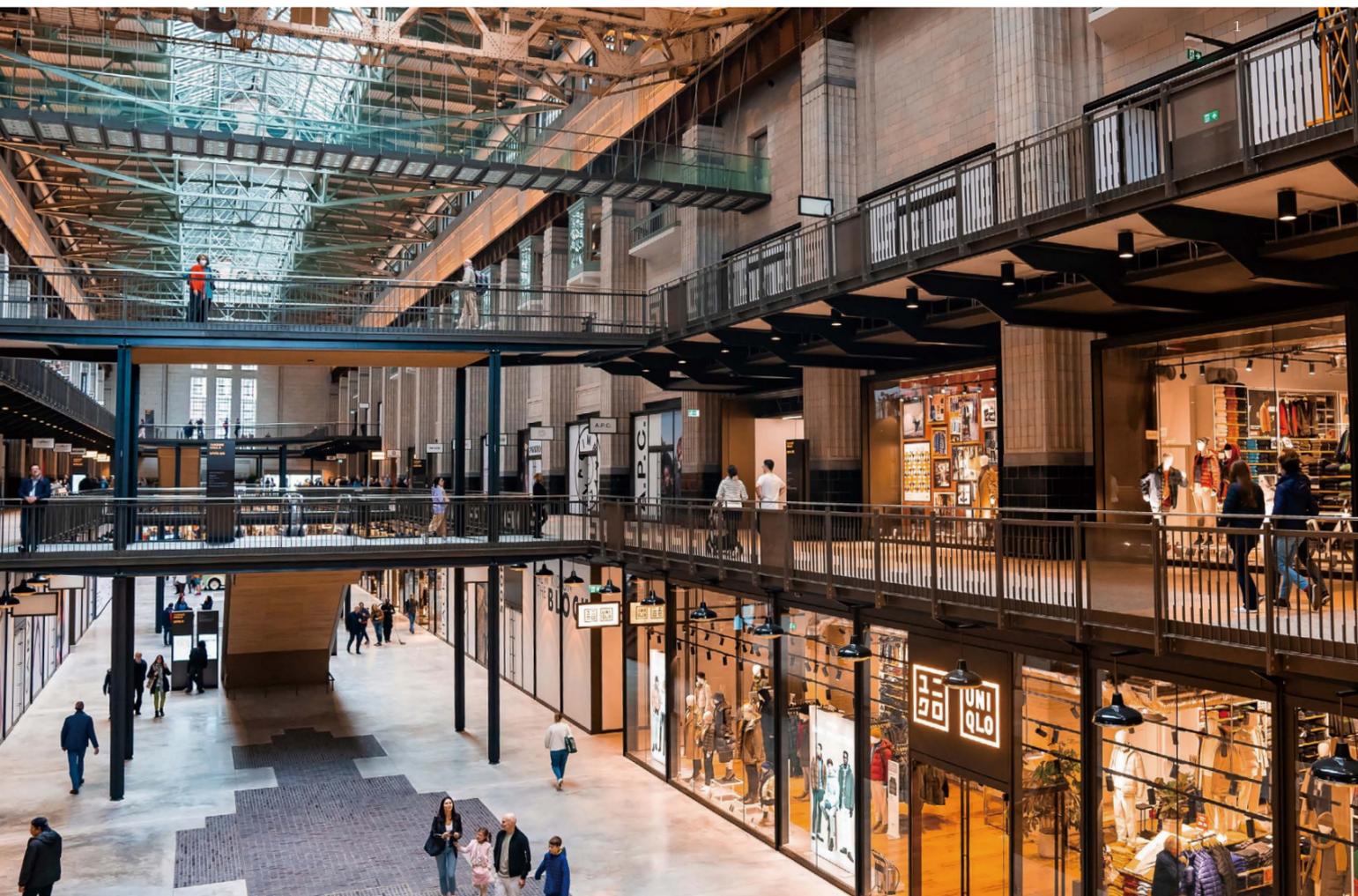
부터 나인엘름스 프로젝트는 주거·업무·상업·문화예술 시설을 포함한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 재생 사업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투자 회사와 개발 회사로 구성된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 컨소시엄이 전체 부지를 인수했고, 윌킨슨에어 건축사 사무소(WilkinsonEyre Architects)를 선정해 화력발전소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다목적 주상복합건물로 개조하는 디자인을 마련했다. 디자인의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형 벽돌 건물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윌킨슨에어 건축사 사무소는 화력발전소를 상징하는 건물 외벽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고 화력발전소의 상징인 굴뚝도 거의 완벽하게 복원했다. 템스강 변 방향의 굴뚝 하나는 매력적인 전망대(Lift 109)로 개조해 강변과 도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프랑크 게리(Frank Gehry),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를 포함해 세계적 거장들이 디자인한 건물과 공간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형태는 물론이고 친환경을 포함한 혁신적 디자인 개념을 선보이면서 나인엘름스 지역을 세계 건축의 경연장으로 만들고 있다.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의 정면은 템스강 변이지만 모든 방향에서 걸어서 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완벽한 대칭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양쪽은 화력발전소의 터빈 홀이 있던 공간으로 2개 층에 걸쳐 거리형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카페, 극장 등이 들어섰다. 쇼핑몰이지만 가운데 넓은 공간을 비워두고 산책로 같은 공공 시설로 조성한 것이 단연 두드러진다.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과 신나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내부 공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기능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공성 측면에서는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을 연상시킬 만큼 비슷하다. 다시 말해 예술과 라이프스타일을 연결해 예술을 즐길 수 있게 공간에 문화를 녹여냈다.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은 검은색 철재를 활용해 발코니 형식으로 2개 층을 만들어 편안하게 걸어 다니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치 붉은색 벽돌 외관이 검은색 철재로 이루어진 내부를 감싸고 있는 듯하며 재료의 물성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화력발전소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현대적 쇼핑몰이 들어서 옛것과 새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 1 검은색 철재를 활용해 발코니 형식으로 2개 층을 만들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했다.
- 2 화력발전소를 재활용한 다목적 주상복합건물로 지역 성장을 위한 앵커 역할을 꿈꾸는 배터리 파워스테이션.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외부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터빈 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야외 광장과 석근 가든은 주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 공간이다. 이곳에는 주로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상점과 편의 시설이 자리하는데 계획 초기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아늑한 장소다.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런던 시민들에게 선사한 또 다른 선물은 전면에 조성한, 템스강과 마주한 수변 공간이다. 화력발전소의 야적장이었던 곳이 템스강 변을 감상하는 장소이자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열리는 수변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주말이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과 여행자들이 찾아온다.

런던은 진화한다

아직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의 모든 공사와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작년 가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고 주변에서는 나인엘름스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00년에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이 산업 유산을 재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런던의 매력을 세상을 알렸다면, 2023년에 바통을 이어받은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은 산업 유산을 재활용한 다목적 주상복합건물로서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100여 년 전에 형제처럼 등장한 2개의 화력발전소가 21세기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자일스 길버트 스크튼은 두 화력발전소의 외관을 디자인하면서 비록 산업 시설이지만 대성당과 같은 모습

을 꿈꾸며 그에 걸맞은 디자인을 접목했다. 그렇지만 그 자신도 두 건물이 이처럼 변신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과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주는 교훈은 전형적 산업 시설로 건립해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가 새 생명을 얻어서 지역 성장을 위한 앵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이 테이트 모던으로 재탄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주변 일대가 활력을 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동일한 관점에서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이 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주변에 대규모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조건, 맥락, 위치, 규모, 기능이 모두 다르지만 배터리 파워 스테이션은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의 전통을 계승해 쇠퇴를 해결하고 런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런던은 계속 진화한다.

김정후 건축가이자 도시사회학자로 도시학, 사회학, 지리학을 넘나들며 도시와 건축의 본질을 탐구한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서울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디자인 정책과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연구한다. 영국 배스대학교 건축과 박사과정을 거쳐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런던의 도시 재생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런던시티대학교 지리학과 도시 연구 펠로(fellow)로서 유럽과 아시아 도시에 대해 강의하고 논문을 지도하며,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쓰다,

최경주 골프 선수



사진 최경주재단 제공

최경주. 한국인 최초로 PGA(미국 프로 골프) 투어에 진출하며 '코리안 탱크'라는 수식어를 획득한 이후 2024년에 또 한 번 한국인 최초로 PGA 더 시니어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뛰는 동시에 골프 꿈나무를 키우는 최경주재단을 이끌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올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도, 개인도 어떤 구체적인 목표 없이는 동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 관리, 여러 가지 훈련 등 제반 사항을 꾸준히 다져 나갔습니다. 선수는 누군가 세워놓은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합니다. 이번 챔피언스 투어에서 저는 '원하는 목표를 꼭 한번 이뤄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 굳건한 마음가짐이 PGA 더 시니어 오픈 챔피언십 우승, 앨런 챌린지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의 동력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 오래,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골프 꿈나무들에게 저는 항상 반짝하는 선수보다 통련하는 선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프 선수를 꿈꾸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오늘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들과 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발휘해 우승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연륜이 쌓이면서 골프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요새 특히 깊이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수마다 골프를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기술이 다릅니다. 저는 공을 강하게 치지 않고 짧은 충격을 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흔히 표현하기를 '톡톡 친다'고 하는데 권투에서 잼을 날리는 타법과 같습니다. 큰 힘을 쓰지 않으면서 공을 충분히 멀리 보낼 수 있는 실력은 매일 스쿼트 150개, 팔굽혀펴기, 악력 훈련 같은 것을 통해 단련합니다.

음식도 영향을 줍니다. 요즘 저는 알코올, 커피를 전혀 섭취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몸속 에너지를 전달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음식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몸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예전보다 크게 향상되면서 지치지 않는 체력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큰 경기를 치려면 멘탈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압박이 큰 경기를 치르면서 불안에 쫓기지 않고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골프의 다양한 기술을 충분히 훈련해 습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립 체크, 스윙 체크 같은 훈련을 매일 반복하면서 저의 골프 스윙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쌓은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합쳐지면 큰 경기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경기가 조금 안 풀린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나를 믿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경기했던 선수 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타이거 우즈(Tiger Woods)입니다. 저는 유난히 우즈와 경기를 많이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가 공을 치는 소리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게임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요. 기록을 중요시하는 모습이나 훈련하는 방법 등 배워야 할 점이 많아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경기에 임합니다.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왜 잘하는지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한 후 지금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1986년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때 제가 살던 완도는 골프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때는 골프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골프부를 창설하고 제가 부원으로 뽑힌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부원들에게 채를 하나씩 쥐어주면서 공을 쳐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첫 타의 강렬했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역도 선수 출신입니다. 하지만 역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골프의 매력은 엄청났습니다. 첫 타에 맞았던 그 감에 매료되어 누가 뭐라 하든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해냈습니다. 저의 열정과 훈련량은 환상적인 골프의 시작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초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루틴이 있을까요?

저는 매일 퍼팅, 벙커, 아이언 샷, 드라이버 올 세트를 점검합니다. 예전만큼 연습량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1000일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팔굽혀펴기, 손 악력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매일 하며 기본에 충실하려 합니다. 시합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기에 운동을 루틴화해서 3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기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시차가 바뀌어 루틴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는 비행기에서도 하는데, 그럴 땐 하루에 두 번씩 루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에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과거와 달리 대중화되었는데,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일반인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선 공을 치기 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매너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시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상대가 퍼트를 하려고 할 때 조용히 집중하고 라인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골프는 룰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룰에 따라 공을 치고 그 룰을 인정하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골프의 전통이자 매너입니다.

또 요즘에는 티샷 시작 10분이나 15분 전에 도착해 바로 티박스로 가서 공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시간 전에 도착해 몸을 풀고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에 관해서는 그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채가 놀지 않게 잘 잡고 쳐야 제대로 된 임팩트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꾸준한 연습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나요?

저는 시합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은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 그 실수가 줄어들습니다.

이는 비단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계획에서 벗어난 상황을 마주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골프는 그 자체로 아쉬운 운동입니다.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합을 잘 했어도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가 재미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가져다주고 재미없는 것, 되지도 않는 것을 1시간 동안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으니까 계속하고 중독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운동도 ‘좋은 중독’입니다. 성적으로 평가받고 대회를 통해 제 삶이 한 단계 윤택해지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골프 꿈나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최경주재단 운영의 기본 철학과 앞으로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재단 운영은 어렵습니다. 재단을 이끌고 있는 아내가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하고, 우리가 살 미래를 위해서 힘쓰자고. 그래서 최경주재단은 잠재력이 크지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꿈나무들을 육성합니다.

20년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 5년 전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 재단을 통해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단의 골프 꿈나무 출신들과 PGA 투어에서 함께 라운드하고 시합도 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며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재단에 도움을 주셔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삶, 기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최경주 선수의 SK텔레콤 오픈 우승이 확정되자 후배들이 물을 뿌리며 축하하고 있다.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렵지만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 그리고 일과 인생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텐데, 어떠한지요?

저는 훈련과 대회가 많다 보니 아빠로서는 빵점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삶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넉넉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아내가 거의 혼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기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와 있을 때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골프를 안 할 때는 어떤 삶을 사나요? 골프가 매력도 1순위라면 2순위는 무엇인가요?

골프를 안 하면 아이들과 낚시를 갑니다. 아내와는 아직 함께 가지 못했는데 가족 모두가 함께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이 제 꿈입니

다. 낚시 외에는 가족끼리 라운드하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한 팀을 이루고 막내딸과 제가 팀을 이뤄 경기합니다. 홀 매치를 해서 이긴 팀에게 상을 주곤 하는데 20번의 경기 동안 단 한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호시탐탐 저와 딸을 이겨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골프 선수로 남고 싶나요?

최경주는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력하는 선수, 최선을 다하는 선수, 우리나라 골프에 기여한 선수,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애쓴 선배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 골퍼. 미국 PGA 투어에 한국인 최초로 입성하여 세계의 내로라하는 골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최경주재단을 설립해 ‘최경주골프꿈나무’, ‘AJGA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후원 사업을 펼쳐 골프 꿈나무들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24년 7월 18일,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이 모조리 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디지털 암흑시대가 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전광판이 있다. 바로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이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화려하고 찬란한 전광판이 모조리 꺼져버린 사태가 발생했다. 2024년 7월 18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이다. 주요 항공사의 비행기가 일제히 운항을 멈췄고, 방송은 물론 금융 결제, 의료, 물류 등의 서비스도 대혼란을 겪었다. 바로 이런 '디지털 암흑'은 이 세계가 얼마나 온라인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단 하나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만으로 전 세계인의 활동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디지털 암흑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설령 디지털 암흑시대가 장시간 지속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2022년 한국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송수신과 로그인 장애를 일으켜 모바일은 물론 컴퓨터, 이메일 등 수많은 서비스가 마비된 적이 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때문이었다. 화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고,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게 된다. 나 또한 주로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며칠간 커다란 불편을 겪으며 생각했다. '아날로그에 가까운 삶이 그림자'고 외치면서도 사실은 나 또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CD나 LP가 있어도 그것을 일부러 꺼내서 듣는 것이 귀찮아서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음으로는 'CD나 LP로

음악을 듣던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다. 몸은 더욱 편안하고 빠른 것에 중독되어 인간은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등한시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도시 마비, 인간의 다양한 얼굴들

넷플릭스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Leave the world behind)」를 보니, '디지털 암흑시대가 온다면 인류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인류 공통의 화두가 된 것 같다. 정체불명의 사이버 테러로 국가 전체가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로 방송은 물론 모든 전자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아만다(줄리아 로버츠)와 클레이(에단 호크) 가족은 대혼란에 빠진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오락을 하던 주인공들은 극심한 '디지털 금단현상'을 겪게 된다. 도시 전체가 마비되어버리니 가장 심각한 일은 '몸이 아플 때' 발생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치아가 계속 빠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아들 아치에게 약을 구해다 줄 수도 없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 영화에는 전형적인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첫째, 이타주의자들, 즉 생면부지의 타인까지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따스한 주인공들이다. 둘째, 회색 지대 사람들, 즉 평화로운 때는 다정하지만 유사시에는 에고이스트가 되어 타인을 의심하고 추방하려는 사람들이다. 셋째, 극단적인 소시오패스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영화에서는 명배우 캐빈 베이컨이 이 무시무시한 인

물, 대니 역할을 맡았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에게 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냉혹한 소시오패스, 대니였다. 물과 식량과 약품, 무기까지 잔뜩 쌓아놓고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대니뿐이었던 것이다. 이타주의자들과 회색 지대 사람들은 대니에게 간청한다. 제발 고통받는 이 소년을 살려달라고. 무엇이든 다 주겠으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부탁한다고. 마침내 그들은 대니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약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서 극단적인 냉혈한도 마침내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단지 '유사시에 대비해 생존 배낭이라도 챙기자'라는 식의 실용적인 교훈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와닿았다. 절대로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용기, 혼자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내자고 권유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은 아만다의 딸 로즈가 선택한 '마지막 기쁨의 순간'이다. 로즈는 요즘 아

이들 같지 않게 「프렌즈」나 「웨스트윙」 같은 오래된 미드(미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소녀다. 로즈에게 가장 큰 슬픔은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할 것만 같은 상황이 아니라, 와이파이가 끊겨 「프렌즈」의 다음 시리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실에서는 친구가 거의 없는 외로운 소녀 로즈가 「프렌즈」를 보며 다정한 친구들의 연대감, 우정, 알콩달콩한 러브 스토리를 즐기고 감동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로즈는 그 누구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오빠 아치와는 매일 티격태격한다. 하지만 옛날 드라마를 볼 때만큼은 지극히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같다. 로즈에게 「프렌즈」는 도달할 수 없는 낭만적 유토피아가 아니었을까. 마침내 사이버 테러가 가속화되어 뉴욕시가 폭격당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어른들. 모두가 대혼란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로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하 벙커에 잠입한다. 로즈는 이 모든 대혼란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와이파이가 끊겨 미처 다 보지 못한 「프렌즈」의 다음 시리즈를 DVD로 관람하는 데 성공한다. 이 어린 소녀는 마침내 지극한 행복의 유토피아를 찾은 것이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심각한 상황



© Netflix

- 1 '잠들지 않는 뉴욕'을 상징하는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
- 2 전산 시스템이 멈춰버린 지구. 전기차들이 자율 주행 중 통제권을 잃고 도로에 멈춰섰다.

이 울지라도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마지막 안전지대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로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벙커 같은 안전지대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 오래가지 못할 행복이다. 「프렌즈」가 끝나면 로즈는 어떻게 될까. 그 벙커에는 수많은 DVD가 있어 로즈는 한동안 행복하겠지만 그 모든 DVD를 다 섭렵한다고 해도 로즈는 과연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타인의 인생을 엿보는 행위만으로는 진정한 충만함을 느낄 수 없지 않을까.

아날로그가 주는 창조와 비판적 사유

나는 이 영화를 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SF 소설 「화씨 451」(레이 브래드버리)을 떠올렸다. 휴고상 수상작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은 디지털 암흑시대가 아닌 '책 암흑시대'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려냈다. 정보를 통제하는 미래 사회에서 '모든 책을 금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창조적인 사람은 지배계급에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지배계급에 대한 도전과 저항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책을 집에 두는 것까지 금지한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직업은 책을 불태우는 방화수다. 그는 인간을 골치 아프게 하는 책을 태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주입받은 사람이지만 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느끼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랑스러운 소녀 클라리세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클라리세는 남몰래 책을 읽는 소녀, 즉 국가가 금지하는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비판적

사유, 창조적 사유, 열정적 사유를 사랑하는 이 매혹적인 소녀는 '책이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책을 불태우는 주인공'은 마침내 인류의 문화유산 중 특히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지켜내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된다. 그는 시와 소설, 문학과 철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마침내 자신이 평생 진실이라고 믿었던 세계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정보를 통제당하는 사회가 행복한 유토피아라는 지배계급의 거짓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와 AI로 인해 가능해진 초연결 사회가 가져올 미래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디지털 종족 사회'에 빠져버린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디지털 미디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는, 즉 손발을 움직여 끊임 없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아날로그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기계에 잘 적응하는 방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몸과 내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남는 건 희망과 사랑

정말 디지털 암흑시대가 온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압축해 말하면 첫째, 의식주를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 어떻게든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생존 훈련이다. 응급 상황 대처법, 최소한의 음식으로 오랫동안 버티는 법, 물을 찾고 보존하는 법 등 우리에게 기계나 미디어에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버티는 생존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며 사랑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힘겨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금방 고갈되어 버릴 것이기에. 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희망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계나 디지털 미디어가 없어도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모든 정보 통신망이 마비될지라도 책이 있다면, 교사가 있다면, 작가가 있다면, 예술가가 있다면, 우리의 지식과 문화와 예술은 끝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희망, 무언가를 다음 세대에 전달 수 있다는 희망이야말로 인류에게 눈부신 구원이 되어주지 않을까.

정여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인문학, 심리학, 글쓰기 등을 주제로 다수의 책을 썼다. 저서로 제3회 전속회문학상을 수상한 산문집 「마음의 서재」를 비롯해 「문학이 필요한 시간」,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끝까지 쓰는 용기」 등이 있다.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살롱드뮤즈'에 연재하고 있으며, KBS라디오 <이더헤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진행을 맡고 있다.

기후 재난 시대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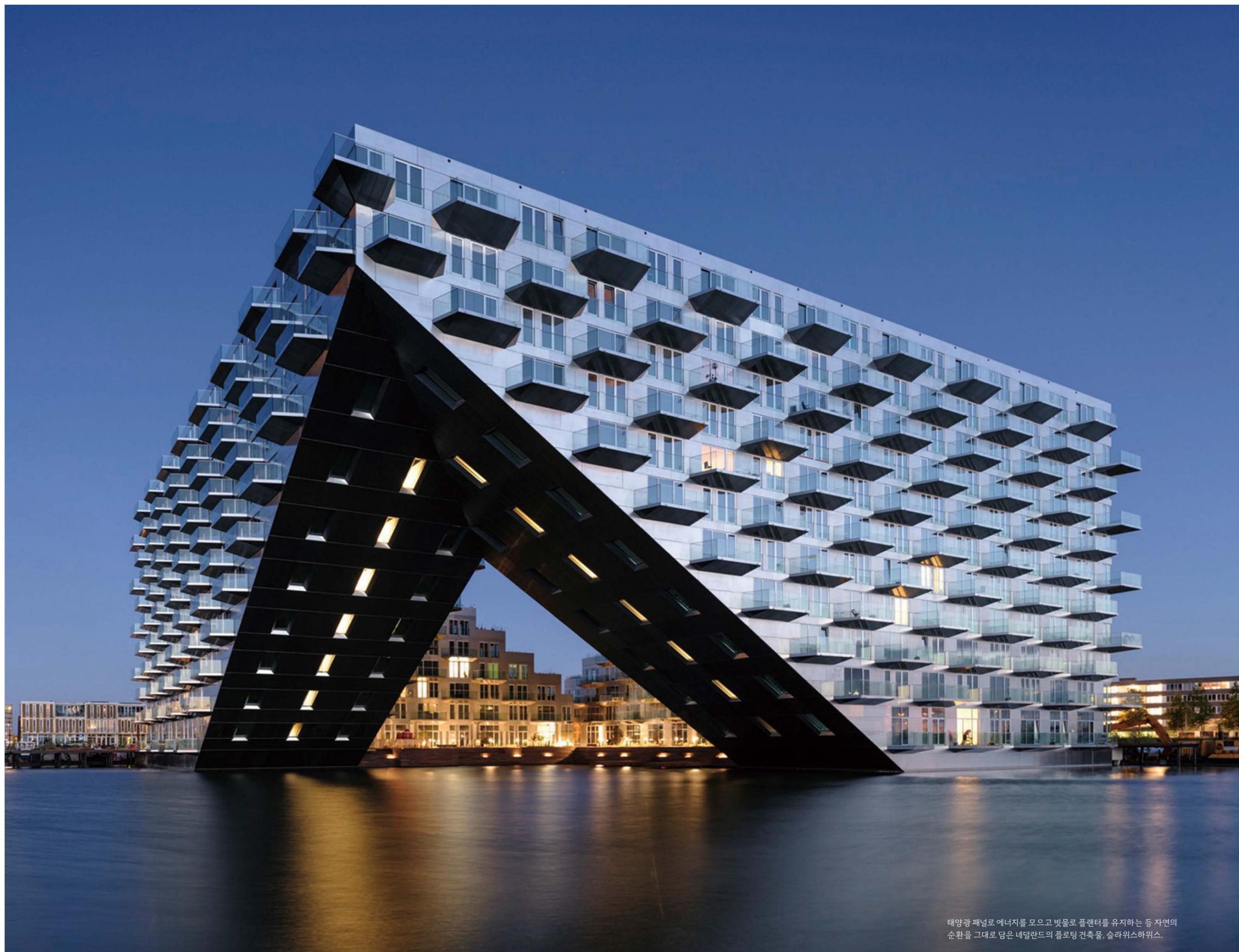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 '끓는 지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올여름 폭염과 홍수는 예년보다 더 강렬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위기의 징후가 자주 포착된다. 더욱이 올겨울의 한파는 예측 불허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의 마지노선 1.5°C를 향후 5년 내에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극한 기후 재난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가?

글. 김정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재난, 그리고 기후 팬데믹. 기후 문제를 이르는 용어의 변화에는 오늘날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깨달은 진실은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어의 변화에 비해 산업과 연결된 생활 세계의 관성은 바꾸기 쉽지 않다. 과거에 비해 길어진 여름, 폭염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저지대 해안 도시의 수몰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다. 건축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면서, 재난에 적응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물 위에서의 삶, 플로팅 건축

국토의 절반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는 오랜 시간 간척지와 제방 시스템을 구축해오며 물 관리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쌓아왔다. 덴마크 건축 회사 BIG와 네덜란드 건축 회사 바코드 아키텍츠(Barcode Architects)가 2022년에 암스테르담에 건설한 슬라위스하우스(Sluiswijk) 주거 건물은 물 위에서의 삶을 제시한다. 제방과 연결해 바다 위에 건설한 이 건물의 한쪽은 바닷물이 중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이고, 다른 한쪽은 계단식 테라스로 이루어졌다. 442세대로 구성된 이 공동주택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모으고 빗물로 플랜터를 유지하는 등 자연의 순환을 그대로 담은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물, 슬라위스하우스.



1

은 모든 세대가 중정을 통해 진입하고,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 부두나 옥상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데크 등 곳곳에서 물을 접할 수 있다. 이 건물에는 우수한 단열 및 열회수 기술을 적용했으며, 2,200㎡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난방과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기술적 측면 외에도 슬라위스하위스는 녹지와 빗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중정을 비롯해 정원과 측면에 자생식물이 자라는 정원이 있고, 옥상 정원에서 수집된 빗물은 주택의 녹지에 내장된 플랜터로 공급되어 순환된다.

BIG가 유엔해비타트(UN-Habitat)의 뉴 언버 어젠다(New Urban Agenda), 블루 테크 기업 오션닉스와 함께 제안한 플로팅 커뮤니티 '오션닉스 시티(Oceanix City)'는 보편적인 프로토타입을 지향한다. 오션닉스 시티는 에너지, 물, 음식, 폐기물이 순환하는 인공 생태계로 설계해 300명의 주민이 사는 동네에서 1만 명이 사는 도시로 진화하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부산을 대상으로 삼아 설계 중인데, 2헥타르 면적의 모듈식 마을에 300명의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자족적인, 복합 용도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 위에 떠 있는 마을의 구조물은 7층 높이로 제한해 무게중심을 낮추고 바람에 저항하도록 설계한다. 또 내부 공간과 공공 영역에 그늘을 만들어 냉방 비용을 줄이고, 태양열을 포집하기 위해 지붕을 최대화할 것이다. 해수면 아래, 즉 플랫폼 밑면에서는 바이오록(biorock) 부유 암초, 해초, 굴 등이 물을 정화하고 생태계를 가속화한다. 2023년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부산 북항에서 열리는 엑스포 개최에 맞춰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오션닉스 시티 같은 대규모 부유 도시의 비전이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건축가도 있다. 코펜하겐의 조선소에 작업장을 두고 있는 해양 건축

회사 MAST는 부유식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상했다. 재활용 강화 플라스틱(recycled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든 평면-포장 모듈(flat-packed module)을 다양한 구성으로 조립해 부유 기반을 제공한다. 이 모듈은 전 세계로 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시애틀의 부유 주택(floating house)부터 오슬로 피오르의 부유 캠프장(floating campsite), 호바트 강변의 사우나(sauna)에 이르기까지 물 위에 거의 모든 것을 건설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매우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MAST 설립 건축가 마셜 블레처(Marshall Blecher)는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기존의 여러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강철과 콘크리트 부표는 운반하기 어렵고, 종종 독성이 있는 오염 방지 페인트를 칠했으며, 플라스틱 부표는 작은 구조물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비온(자갈로 채운 메시 케이지)에서 영감을 받은 이 디자인



2

은 현지에서 조달한 부유 재료로 채울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케이지로 구성된다. 이 부유 재료 사이에는 무수한 틈이 생기는데, 이 공간은 다양한 수중 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재료를 활용할 수상 가옥을 만드는 해법이다.

MAST는 현재 이 시스템을 활용해 포르투갈에서 숙박 시설인 '랜드 온 워터(Land on Water)'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마치 집과 마당으로 이뤄진 여러 작은 섬들이 연결된 마을 같은 모습이다. 공원이나 카페, 수영장 등 다양한 기능의 섬들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커뮤니티의 규모와 다양성을 조절할 수 있다.

가장 최소의 집, 타이니 하우스

2018년 22㎡ 규모의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시범주택 '타이니 하우스(Tiny House)'가 뉴욕의 유엔 광장에서 선보였다. 유엔해비타트의 의뢰로 미국 예일대학교 건축생태계센터(Center for Ecosystems in Architecture)와 그레이 오간스키 아키텍처(Gray Organschi Architecture)가 협업한 생태적 생활 모듈(Ecological Living Module, EDM)이다. 오늘날 10억 명의 사람들이 비공식 거주지에 살고 있는 한편, 주택 부문은 지구 전체 자원의 40%를 소비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EDM 디자인은 천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면서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췌기 모양의 주택은 지속 가능한 재료와 간단한 건설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건축해 필요한 전기를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캐빈을 짓는 데는 엔지니어링 목재를 사용했으며, 큰 슬라이딩 유리문으로는 자연광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한쪽 벽에는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포켓을 두었고, 수경 재배를 하는 녹색 벽은 식물의 뿌리 시스템을 활용해 공기 중 병원균을 걸러낸다. 최대 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초소형 주택은 침실 로프트, 휴식 공간, 주방, 샤워 시설과 퇴비 통을 갖춘 욕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거지는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고 여과해 벽에 통합된 작물 재배에 활용한다. 건축에 사용할 부재는 4주에 걸쳐 외부에서 사전 제작해 트럭으로 운반했다. 건물은 유엔 광장에서 16명이 3일 만에 조립했다. 연구 팀은 만약 EDM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면 유닛당 5만 달러 이하로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려진 자재를 재사용해 지은 순환 건축

순환 건축의 선구자로 알려진 아네르스 레나게르(Anders Lendager)는 2022년 미스 반데어로에 어워드 후보에 올랐던 '리소스 로스(Resource Rows)' 같은 프로젝트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레나게르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환경친화적 건물을 짓기 힘든 이유로 비용과 미학을 든다. 환경적으로 고성능 자재를



- 1 자연 생태계를 모방하여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청색 기술(Blue Technology)을 적극 활용한 순환 건축, 오션닉스 시티.
- 2 다양한 기능의 섬을 조립해 커뮤니티의 규모와 다양성을 조절할 수 있는 '랜드 온 워터' 프로젝트.
- 3 벽돌 패널을 체커보드 모양으로 부착해 흥미로운 입면을 만들어낸 아네르스 레나게르의 리소스 로스.

쓰면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환경 기준을 맞추다 보면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인들과 건축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생각이다. 반면 레나게르는 오래된 건물에서 건축자재를 '수확'한다. 벽돌 벽을 철거할 때 벽돌이 깨지지 않도록 큰 사각형 형태로 벽돌을 잘라내어 패널을 만들고, 리소스 로스의 외벽은 이 벽돌 패널을 체커보드 모양으로 부착해 흥미로운 입면을 만들어냈다. 그 밖에도 코펜하겐의 공사 현장에서 버려지기 직전의 나무 300톤을 얻어 건물 외벽과 테라스, 바닥, 발코니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옥상에는 재활용 창문과 유리로 업사이클링한 온실을 만들어 주민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한다. 빗물은 수집되어 화장실이나 옥상 녹지에 활용된다.

건축물의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 사용하면서 또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건축자재를 만들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못지않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고성능 자재를 사용해 법적인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제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관습을 되짚어보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가야 할 때다.

김정은 건축과 조경을 공부했다. 『건축인 POAR』, 『Space(공간)』, 건축 리포트 『와이드AR』, 『환경과 조경』에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Space(공간)』 편집장을 맡고 있다. 건축과 도시, 조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금 여기'의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있다.

다양성의 존중,

베를린의 비건 라이프



비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채식주의 생활 방식의 하나로,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고 과일·채소·곡물 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이다. 지난 몇 년간 유행처럼 번졌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채식은 가끔 마주하는 ‘특별한 방식의 메뉴’일 뿐이다. 그러나 독일 베를린에서는 채식이 평범한 일상이며 문화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법을 베를린의 비건 라이프를 통해 살펴본다.

글. 이동미

5년째 베를린에서 살고 있다. 40년 넘게 한국에서 살다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서울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일도 이곳에서는 두세 달씩 기다려야 하니(인터넷 신청이나 관공서 또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인내심이 생겼고, 잘 꾸며놓은 쇼핑몰보다는 공원이나 호수를 더 자주 가게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먹거리인데, 고기를 좋아하는 내가 베를린에서는 채식도 즐기게 됐다.

비건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건 남편의 영향이 크다. 열네 살 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남편을 따라 5년 전 처음 비건 음식을 먹어봤다. 그런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먹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고기가 전혀 아쉽지 않은 맛있고, 우리의 단골 레스토랑 리스트 중에 비건 레스토랑이 있을 정도다. 남편은 달걀과 치즈, 생선까지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베를린에서 이렇게 비건 음식을 자주 먹었을까 생각해봤다. 5년을 살고 난 지금의 대답은 ‘예스’다. 왜냐하면 베를린 친구 셋 중 한 명은 고기를 먹지 않고, 더 엄격하게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베를린에서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건 음식점에 가게 될 것이다.

독일 인구의 10%가 채식주의자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의 2022년 기준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채식주의자다. 독일 인구의 절반은 나처럼 고기나 생선을 먹고 그 횡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플렉시테리언(유연한 채식주의자)이며, 완전한 채식주의자인 비건도 2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베를린이 있다.

베를린에서 채식은 이미 유행을 넘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진짜 베를리너가 되려면 베지테리언이 되어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물론 베를린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채식을 한다고 하면 유별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처음부터 이런 문화가 순조롭게 정착된 것도 아니다. 오래전 한 회사에서 메뉴 표기 방식 때문에 이슈가 되었는데, 담당자가 채식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채식’, ‘생선은 가능’, ‘정상’이라고 표현한 것이 발단이었다.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정상’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 일부 동료의 정정을 요구했고, 그다음 해에는 ‘고기’, ‘생선’, ‘둘 다 불가능’으로 정정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에 신중을 기하며, 더 나아가서는 누가 어떻게 먹든 상관하지 않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았다.

베를린에서는 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해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 남편의 경우도 학교 수업 시간에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사육하고 고기를 얻는 육류 산업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베지테리언이 되었다. “내가 쓰는 돈이 공장식 육류 산업에 사용되는 게 싫었어. 내가 평소 쓰는 돈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평생에 걸쳐 모은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닐 거야. 열악한 환경에서 항생제를 맞으며 생산된 고기가 아니라면 가끔 먹기도 해.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사냥꾼에게 잡힌 황소 같은 경우 말이야. 그건 행복하게 살다가 간 거니까.”

평생 고기를 즐겨 먹었고 돼지갈비와 떡갈비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나는 머리로 비건 문화가 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을 알지만 솔직히 완전히 고기를 끊을 수는 없다(는 걸 안다). 그런 내가 베를린에서 유연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신념보다는 ‘고기 맛이 그리지 않은’ 비건 음식 덕분이었다.

베를린의 비건 음식이 주는 놀라운 점이 바로 그 부분에 있다. 많은 레스토랑에서 창의적이면서도 친근한 비건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고기가 들어간 요리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다. 세이탄(seitan, 밀로 만든 식물성 고기)이 들어간 쌀국수를 파는 베트남 비건 음식점에서부터 비건 스테이크집, 비건 피자집, 비건 아이스크림 숍, 비건 케이크 카페, 비건 코스 요리의 미쉐린 레스토랑까지, 원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점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이 베를린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

베를린을 대표하는 비건 레스토랑

전 세계 비건을 위한 식당 가이드 앱 ‘해피카우’는 베를린에 채식 주의자와 비건을 위한 전문 식당이 200여 군데 있다고 밝혔다. 늘 가볼 만한 곳으로 언급되는 인기 비건 음식점도 80여 군데나 된다. 몇 군데를 소개하자면 베를리너들이 사랑하는 카난(Kanaan)이 있다. 심각한 전쟁 지역으로 꼽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만든 곳으로, 8년 전 오픈 때부터 화제가 되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뜻하는 카난에서는 우유와 달걀을 이용한 채식 요리와 밀이나 콩고기로 만든 팔라펠, 두유로 만든 요거트 소스의 후무스 같은 비건 메뉴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 늘 큰 주제로 다루는 난민과 인종차별, 성차별 문제에도 적극적인데, 지난 7월 중순 배후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무분별한 기물 파손을 당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다. 베를린 경찰은 강도가 아닌 종교 또는 인종과 관련된 증오 범죄로 결론을 냈다. 카난은 이런 범죄가 자신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두 국적의 사람들, 성소수자들과 연대한 이벤트를 최근 더 적극적으로 열고 있다.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레스토랑’으로 주목받은 프레아(Frea)도 빼놓을 수 없다. 동물성 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순수 비건 요리를 선보이고, 사워드 빵과 파스타 면도 100% 식물성 재료로 직접 만든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과 식재료는 퇴비로 만들어 다시 농장에 전달한다. 레스토랑에 당연히 일회용 용기는 없다.

비건 음식을 코스로 즐길 수 있는 파인다이닝도 여러 곳 있다. 가장 유명한 곳은 2018년부터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쿠키스 크림(Cookies Cream). 해초 캐비아를 올린 달걀노른자(진짜 달걀 아님), 된장 오이 샐러드, 양배추로 만든 메인 요리 등 단일 농장에서 공급받는 신선한 야채와 절임·발효 방식을 이용한 창의적인 음식을 4코스에서 7코스까지 선보인다. 무엇보다 이 혁신적인 채식을 처음 선보인 것이 2007년이었던 사실이 놀랍다. 17년 전부터 채식 파인다이닝을 알려온 쿠키스 크림의 명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패스트푸드에도 비건 정착된 베를린

한 도시에 이처럼 다양한 테마와 종류의 채식과 비건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특색 있는 곳을 매일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동네 백반집 가듯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채식이나 비건 음식점이 더 많아야 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 레스토랑에서 비건 메뉴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곳을 비건 친화적 식당이라 부를 수 있는데, 베를린에는 이런 음식점이 1,200여 곳이나 된다. 즉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소고기, 닭고기를 고르듯 두부나 비건 메뉴를 옵션으로 고를 수 있다. 고기를 좋아하는 나와 채식주의자인 남편이 어느 레스토랑을 가

- 1 카난(Kanaan)은 베를린의 대표 비건 레스토랑으로 비건 문화를 전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 2 라임 타히니와 아몬드를 곁들인 컬러풀라워 요리.
- 3 두유로 만든 요거트 소스를 활용한 후무스 요리.



© Kanaan

든 각자 먹고 싶은 걸 골라 사이좋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무척 힘들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베를린에서는 동네 햄버거집에도 저마다 베지(베지테리언) 메뉴가 있어 사 먹기가 쉽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일단 베지 버거가 있는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소문난 수제 햄버거집에도 베지 버거는 없었다.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베지 메뉴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태원이나 압구정동까지 일부러 찾아가야 했다. 한때 유일하게 롯데리아에 베지 버거가 있었는데, 올해 초 서울에 갔을 때는 그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는 추세지만, 비건 식당은 여전히 매우 한정적이라는 걸 실감했다. 한국의 많은 비건들이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에는 여전히 힘든 환경인 것이다.

비건들의 커뮤니티가 활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야채 등의 재료로 맛있고 질리지 않는 채식과 비건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대형 마트에서는 별도의 섹션을 마련해 다양한 비건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그 수나 종류를 보면 아직 베를린과는 큰 차이가 난다.

베를린 인구의 절반이 비건 시도

레베(REWE)나 에데카(Edeka), 페니(Penny) 등 베를린의 대형 슈퍼마켓에는 어느 곳이나 비건 코너가 있다. 비건 햄, 비건 미트볼, 비건 슈니첼, 비건 소시지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비건 제품을 생산

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소에서 얻은 우유보다 두유, 코코넛, 아몬드, 쌀, 들깨로 만든 우유의 판매대가 더 커진 지는 오래되었다. 비건 제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비싸지도 않다.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니 비건이 아닌 사람도 부담 없이 제품을 몇 개 사서 시도해볼 수 있다. 지난해에 비건 영양에 관한 어느 연구 조사에서는 베를린 인구 1,000명 중 절반 이상(54%)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시험 삼아 비건 제품을 산다고 밝혔다. 이제 베를린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비건을 접한다는 의미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는 지난 4월 완전 채식 제품만을 갖춘 레베 풀 플란츨리히(REWE Voll Pflanzlich)가 문을 열었다. 대형 마트인 레베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이 비건 슈퍼마켓에는 2,700개 이상의 완전 채식 제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스낵 바인데, 일반 슈퍼마켓의 샐러드 볼이나 초밥 코너처럼 이곳에서는 신선한 비건 연어 롤, 비건 초밥, 비건 요거트 등을 판매한다. 나는 비건 살라미 두 종류와 트러플이 가미된 비건 치즈를 샀다. 비건 살라미는 솔직히 식감이나 입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일반 살라미와는 차이가 나서 별로였지만, 코코넛 오일로 만든 트러플 치즈는 진짜 치즈처럼 부드럽고 고소했다. 비건 초밥도 아직은 생소해 거부감이 있지만 조만간 한번 시도해볼 생각이다.

비건 제품의 수요가 많은 만큼 독일은 현재 식물성 비건 육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독일 정부는 대체육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베를린은 비건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게 최적의 테스트 시장으로 각광받는다.

베를린에서 채식과 비건은 더 이상 특별한 문화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동물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확대된 보편적 라이프스타일이며, 유기농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건강을 위한 식문화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음식뿐 아니라 패션과 뷰티 제품군에서도 비건은 일상용품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동물성 원료를 완전 배제한 비건 뷰티 제품은 안전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다.

어딜 가나 보이는 비건 마크와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비건 식품, 그리고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갈 수 있는 레스토랑까지, 비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비건의 세계로 안내하는 도시, 베를린. 이곳에선 누구나 자발적이고 유연한 비건이 될 수 있다.

이동미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여행과 문화 관련 컬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 『다시 베를린』(2008), 『이태원 프리덤』(2011), 『방콕 홀리데이』, 『싱가포르 홀리데이』, 그리고 2020년에 낸 첫 에세이집 『동미』가 있다.



© Kanaan



나를 위한 달리기

최근 많은 젊은 세대 인구가 러닝의 매력에 빠져 개인적으로, 혹은 러닝 크루를 결성해 달리를 즐기고 있다. 현재 추정되는 러닝 인구는 약 400만~500만 명. 타인과의 비교에 지친 젊은 세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어제와 다른 나와 만나기 위해 달린다고 말한다.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써 달리가 아닌 '나만의' 달리를 할 것을 제안한다.

글: 김성우

2015년 여름, 나는 달리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다 달리기 선수들의 '빠른 달리의 비밀'을 알고 싶어 1970년대부터 세계 최고의 달리기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케냐 이텐 마을로 향했다. 이텐에서 케냐 선수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훈련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그들과 같이 살면서 달려보니 그들에게 특별한 비밀은 없었다. 그들은 매일 일정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다. 그리고 노력의 힘을 믿으면서도 노력의 결과에 겸허했다. 항상 숨이 가쁜 속도로, 힘들게, 피맛이 느껴지게 달리며, 달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므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것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을 인내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지는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렇게 그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 2013년 서울 마라톤에서 우승한 헬라 선수는 "목표를 갖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결과는 신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만의 달리를 하고 있었고, 저마다의 찬란한 신화를 만들고 있었다.

덕분에 나도 내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고 싶어서 달리를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달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해주는 건강한 습관 중 하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에 집중하고 나만의 건강한 달리를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진실이다. 오늘 나는 '나만의 달리기'를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달리를 하기

'더 빠르게, 더 멀리 달리고 싶다.' 나는 한때 이 생각만 붙잡고 달렸다.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록과 나의 실력을 비교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주말에는 반드시 20km 이상의 러닝을 했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헬스장에서 스쿼트, 데드 리프트, 케틀벨 등의 운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즐거움과 자유로움이 좋아서 시작했던 달리가 갈수록 부담이 되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면서 번아웃이 왔다. 달리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 가끔 달리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40분 이상 혹은 10km까지 달릴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러



다 결국 6개월간 달리기를 멈췄다. ‘내가 할 수 없는 달리기를 하려 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하자’는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느 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가 매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속도나 거리, 달리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해보면 어떨까. 달리기라는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보고 느껴보는 거야. 처음 달리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이렇게 관점을 바꾸었더니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해보자.’

처음 일주일만 나가서 5~15분 동안 천천히 달리는 시늉만 하다가 들어왔다. 일단 문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하는 것에 집중했다. 달리는 거리, 속도에 속박되지 않은 채, 달리는 움직임 그 자체를 관찰하고, 다시 경험하는 것에 집중했다. 예전처럼 강박을 갖고 기록을 목표로 거리나 속도를 신

1 아주 TEAM스타 레이스 대회 참가자들이 주먹을 맞대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2 참가자들은 함께 달려서 서로의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린다.

3 결승선을 통과하며 포즈를 취하는 참가자의 모습.



경 쓰며 달리는 것을 자제했다. 달리고 싶으면 달려라 나갔고, 달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누워서 쉬거나 요가를 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한 후, 달리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 그리고 감사함도 되찾았다. 이렇게 다시 달리기가 내 삶에 안착했다.

반드시 천천히 달리기

이젠 마을에 갔을 때 그나마 발견한 비밀이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달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걷는 속도로 달리기를 시작해서 호흡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계속 달렸다. 바로 이렇게 편하게 달리는 것이 달리기 실력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호흡법이다. 달릴 때 무조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어야 한다. 정말 간단하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정말 간단한 것이 많다.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 코로만 호흡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속도로 달리는 걸 연습하자. 처음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어색할 수도 있고, 비염으로 코가 막혀 있다면, 혹은 콧물이 난다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달리는 시간이, 내 달리기 실력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보통 호흡이 가쁜, 힘든 속도로 달려야 달리기 실력이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800m 이상의 중장거리부터는 산소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유기호흡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호흡이 편한 속도로 달리는 것은 호흡이 힘든 속도로 달리는 것보다 장거리 달리기 능력을 키우는 유산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킨다. 그러므로 달리는 시간의 80~90%를 숨이 차지 않는 편한 강도에서 달려보자. 부상 없이 건강하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이다.

함께 달리기

심리학자 토드 헤더턴(Todd Heatherton)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정말로 변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고 했다. 헤더턴이 참여했던 1994년 하버드대학교 연구 팀은 삶의 방식을 극적으로 개선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는데, 달라진 사람들은 변화를 상대적으로 쉽게 도모할 수 있는 사회 집단에 속한 덕분에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케냐에서 현지 선수들과 함께 살고, 함께 달리면서 커뮤니티의 힘을 느꼈다. 선수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에 세 번 함께 달렸다. 서로 짓궂은 장난을 치며 놀리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서로를 향한 응원과 믿음이 있었다. 동료 선수가 훈련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확인하기도 하고, 해외 대회에 나간 선수에게는 경기 전날 전화로 안부를 묻고, “넌 할 수 있어”, “1등 못하면 돌아오지 마” 같은 믿음과 유머가 담긴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케냐에 온 나에 대해 처음엔 의구심을 품은 듯했던 선수들도 시간이 쌓인 후에는 나를 ‘한 팀’으로 인정해주었다. 너무 피곤해 늦잠 자는 나를 깨워서 훈련을 빼먹지 않게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 응원은 당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자신의 달리기를 공유하고, 다른 멤버들의 달리기를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커뮤니티 멤버들과 서로 힘이 되는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 이런 소통이 서로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모두가 더 꾸준히 달리도록 도와준다. 아프리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큰 힘이 된다.

나를 향한 용기와 믿음

사실 나는 우울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껏 세상이 원하는 나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다행히 달리기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달리기를 할 때만큼은 어둠의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달리는 순간만큼은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살아 있는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

다. 물론 지금도 무기력함이나 슬픈 감정의 파도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술에 의존해서 이런 감정을 회피했는데, 지금은 달리기를 하며 내 감정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아지면 일단 나가서 달려보자. 달리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달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걱정과 스트레스는 작아진다. 살아 있음에 대한 충만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달리고 난 후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며 유연해진 몸과 마음은 덤이다. 물론 모두가 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나를 위한 달리기를 시작하고,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어볼 만하다고 말하고 싶다. 달리고 난 후의 성취감이 매일 쌓이다 보면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를 찾는 달리기는
나에게 편한 속도로
함께 달리며
땀에 젖은 성취를
느끼는 것이다.

김성우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디킨슨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환경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우연히 접한 달리기의 매력에 푹 빠져들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2020년 ‘마인드풀 러닝 스쿨’을 열고 ‘서울숲 맨발 달리기’와 ‘30일 5분 달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누구나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서로 『마인드풀 러닝』(2020), 『30일 5분 달리기』(2021) 등이 있다.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때

불안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연령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다. 내 안의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한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것을 0으로 만들고 플러스 10으로 끌어올려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글. 김창욱
일러스트. 백주현



10대 소녀의 머릿속을 유쾌하게 들여다본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인기가 높다. 사춘기가 시작된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에 전에 없던 감정인 '불안', '당황', '따분', '부럽'이 등장하면서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고 위기가 닥쳐온다는 내용이다. 그중 '불안'은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세우다 결국 라일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2편의 빌런이 된다.

그럼에도 관객들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낯설지 않아 차마 그를 미워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감정인 불안.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성공을 위해 달린다. 그러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힌다. 하지만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잘하려고 하는 데서 튀어 오르는 불안을 각자의 속도에 맞게 잘 다스리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우리는 천장이 높은 창고형 마트를 자주 찾는다. 대용량 상품을 싼값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큼이나 필요할까 싶으면서도 '언젠가 먹겠지'라는 생각에 큼직한 카트는 금세 물건으로 가득 차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진다. 찬장에 가지런히 쌓아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물건에는 먼지가 쌓여간다. 필요할 것 같은 상품을 필요 이상으로 사버린 셈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면 음식을 버릴 일도, 물건이 애물단지 될 일도 없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이는 단지 소비 습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로 넘어와서 넘치는 감정은 불안을 야기한다. 우리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미리 가져와 그 무게에 힘들어한다.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등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의 창고에 쌓여 우리를 짓누른다.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 깊은 창고에 있는 감정들에 먼지가 쌓이고 결국엔 상해버려 기어이 창고 자체를 통째로 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미리 슬퍼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자.

여러분도 지금 딱 필요한 만큼만 화를 내고, 필요한 만큼만 절망 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만큼만 기대하고, 필요한 만큼만 기뻐하면 좋겠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자주 꺼내보고, 불필요한 건 비우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필요한 만큼만 느끼는 연습을 하자. 필요한 물건은 언제든 살 수 있듯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감정만 담길 바란다. 예를 들어 '2 정도만 실망해도 될 일을 5 정도나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되물어보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미리 슬퍼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자.

미리 걱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완벽주의 성향이다. 이들은 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킨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에게 여유가 없다. 칭찬받아 마땅한데도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자책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직업 면에서도 자리를 잡았고, 벌이도 괜찮고, 노하우도 쌓았는데 저 사람이 더 삶을 알차게 사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짜놓은 완벽한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기에 여유도 행복도 쉽게 다가오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만 발견하곤 한다. 내 삶을 내가 정해놓은 '완벽'이라는 트로피만 바라보게 해두었기에 매번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그냥 우리 모두, 우리만큼만 하면 좋겠다.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좋은 부모, 너무 좋은 직원이 되려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이미 그 안에 꽤 괜찮은 좋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을 찾자. 자기만의 강박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씩 자신의 삶에 저항하자.

허술하게, 조금 모자라게, 실패해도 괜찮아

제주에는 담이 많다. 바람이 많이 부니 담을 쌓아 거센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주의 담은 특별한 점이 있다. 시멘트로 발라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흔하게

널린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으로 대강 담을 쌓는다. 이 얼기설기 쌓은 돌담은 역설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강한 바람을 견뎌낸다. 바람의 길을 따라 구멍 이곳저곳에 강한 힘이 분산되고 오래오래 자리를 지킨다.

바람이 통할 정도의 틈,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틈이다. 완벽하지 않은 허술함 덕분에 거센 바람이 큰 탈 없이 통과되며 삶을 지킨다.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모든 틈을 시멘트로 다 메워버리면 태풍이 불 때 삶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가끔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서 더 빨리 가려고 그 안에서조차 달리는 사람이 있다.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하지만 빨리 가면 뭐 하나. 인생의 사건 사고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생겨나 삶을 이따금씩 멈추게 한다.

완벽할 때의 모습만 받아들이려 하지 말자.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려면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도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나 두려움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레슨비라고 생각하자.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모자라면 좀 모자란 대로 그것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 멋지지 않아도 나는 내가 좋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 이렇게 스스로를 수용한다면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잠시 멈춤을 통해 나만의 호흡 찾기

일상을 지키는 일, 직장 생활을 하는 일,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하며 인내도 해야 하고 평정심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한다. 숨을 쉰다는 것은 자기만의 여유, 자기만의 여백을 찾는다는 의미다. 커피나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자기만의 숨을 쉬고 여유를 찾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늘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고, 물건은 사도 사도 또 살 게 있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쉬어야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미뤄둔 병원에 가야지. 그러

나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것을 잘 챙겨야 한다.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쉬어야 하고, 여유도 부려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들 역할,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 친구 역할, 가장 역할, 팀장 역할, 정말 잘 맞춰서 한다. 때에 맞게 목소리도 바꾸고, 캐릭터도 바꾼다. 그러다 혼자 있을 때 털썩 주저앉아버리곤 한다. 나의 진짜 모습이 고갈되는 것이다. 남에게 계속 맞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숨의 템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나만의 템포에 맞게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이 엉킨다. 싫을 때 하기 싫다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다고,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인정하

면서 내 역할을 해내야 불안 없이 숨을 내쉴 수 있다. 그러니 주어진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말자. 내 고유의 숨을 쉬며 나를 찾는 훈련을 뒤로 미루지 말자. 내가 여유로울 때 다른 사람과의 호흡을 맞추기가 진심으로 여유로울 수 있으니까.

김창욱 제주도에서 태어나 성악을 전공한 김창욱은 '대한민국 1호 보이스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전문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통 전문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강연으로 대한민국 국민 멘토가 되었다. '스타 강사', '소통의 달인', '강사들의 롤 모델', '힐링 퍼포먼스의 일인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그를 설명하며, 일상에서 직접 발견한 깨달음을 통해 평범한 우리도 삶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있다. 다양한 유튜브브로도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아주IB투자 50주년

2024년 9월 9일, 아주IB투자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1974년 9월 9일, 국내 1호 벤처캐피탈 기업인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로 출범한 이후 1991년 '기보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며 본격적인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F) 전문화를 시작했으며, 2008년 아주그룹에 편입되면서 코스닥 상장,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등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멀티 스테이지 대체 투자 전문 운용사로 도약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아주IB투자의 지난 50년을 살펴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기 연구원들의 모습

‘최초’ 벤처캐피탈, ‘최고’ VC 하우스로 도약

2024년 9월 9일, 아주IB투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1974년 9월 9일, 국내 1호 VC 기업인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로 출범한 아주IB투자는, 1991년 ‘기보캐피탈’로 사명을 바꾸며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로 본격적인 VC와 PEF 전문화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아주그룹에 편입되면서 민간 VC로 재탄생한 아주 IB투자는 출자자와 주주 가치를 실현하며 코스닥 상장,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등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VC, PEF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멀티 스테이지(multi-stage) 대체 투자 전문 운용사로 도약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주IB투자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50년간의 발자취는 아주IB투자를 혁신의 아이콘이자 벤처캐피탈 시장의 개척자로 만들어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것을 기대케 한다.

국내 VC 1호 기업, 기보캐피탈 거쳐 아주그룹으로

50년 전, 아주IB투자는 국내 최초의 VC 기업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당시 사명은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였으며, 벤처 기업과 벤처캐피탈 개념이 낯설었던 시기에 KTAC는 한국 벤처 생태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KTAC는 12개의 벤처기업 설립에 참여했으며, 그중에는 국내 첫 벤처기업인 남해요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5건의 신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면서 벤처 생태계의 기틀을 다졌고, 투자한 벤처기업 중 8개가 IPO에 성공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벤처라는 개념이 생소한 시대였던 1974년 아주IB투자의 출범은 1980년대 본격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삼보컴퓨터, 큐닉스컴퓨터, 미래산업, 메디슨 같은 대표적인 벤처기업들이 등장했고 한국기술개발, 한국개발투자, 한국기술금융 등 새로운 VC들이 속속 출범했다. 정부도 벤처 생태계의 성장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81년 과학기술처의 출자로 한국기술개발이 탄생하며 정책금융 VC 시대가 열렸고, 이는 현재의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전신이 되었다. 1986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벤처캐피탈 설립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벤처캐피탈 시장은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1991년 한국기술진흥은 대주주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사명을 한국기술진흥금융으로

바꾸고 리스, 융자, 여신 전문 금융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합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1999년에는 사명을 기보캐피탈로 다시 변경하면서 전문 벤처캐피탈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특히 운용 자산(AUM) 대부분을 융자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투자 중심의 사업 방향으로 전환했다. 더불어 리스 업무를 한층 강화하고 카드 사업, 할부 금융, 개인 대출 등 금융 서비스 범위를 넓혀 종합금융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보캐피탈이 전문 벤처캐피탈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기보캐피탈은 출범 이후 2000년 3월 첫 펀드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KTAC 3호를 100억 원 규모로 결성하며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1년에는 정보통신부가 출자한 MIC 2001-5 KTAC투자조합 4호와 MIC 2001-16 KTAC투자조합 5호를 결성하며 IT 분야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1,625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IT 중소 벤처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IT 전문 투자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을 모집했고, 기보캐피탈을 포함한 11개 벤처캐피탈이 이에 선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 기보캐피탈은 벤처캐피탈 전문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2006년에는 PEF 시장에도 진출했다. ‘기업은행-기보캐피탈 제1호 PEF’는 2006년 2월에 결성된 기보캐피탈의 첫 사모펀드로, PEF 도입 초기 금융 감독 당국에 등록된 선도적인 펀드였다. 기업은행과의 파트너십은 2007년에도 이어져 7월에 1,100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기보캐피탈 제2호 PEF’를 결성했다. 이 펀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했으며, 1,000억 원대 대형 펀드로는 처음으로 ‘내부 수익률(IRR) 75%’라는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기보캐피탈은 11개의 VC 펀드와 PEF펀드를 결성하며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08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민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민간화가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주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기보캐피탈은 아주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하며 공기업에서 민간 벤처캐피탈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다.

‘아주IB투자’로 새출발, 개척자 정신으로 해외 VC 개척

2008년 10월, 기보캐피탈은 아주그룹에 편입되며 ‘아주IB투자’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름에 담긴 ‘IB’는 국내 최초의 벤처캐피탈로서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 IB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아주IB투자가 출범할 당시 벤처캐피탈 시장은 녹록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축되었던 투자 활동이 점차 생기를 띠며 빠르게 활기를 되찾았다. 아주IB 투자는 2008년 약 3,175억 원의 운용 자산(AUM)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4,587억 원, 2011년에는 6,577억 원, 2012년에는 7,115억 원으로 확대하며, 불과 4년 만에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하는 기록을 세웠다.

아주의 개척자 정신과 아주IB투자의 모험가 정신은 눈부신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아주에 편입된 이후 5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이룬 아주IB투자는 2015년 정부 주도의 벤처 지원 정책에 힘입어 해외 벤처캐피탈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단순히 업계의 흐름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IB투자는 현지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성공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2013년 6월, 보스턴 사무소 개소와 함께 아주IB투자는 국

내 벤처캐피탈 최초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했다. 이를 통해 '아주 Life Science 해외 진출 Platform' 펀드로 바이오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운용 자산 규모도 1조 원을 돌파했다. 또한 11개의 투자 조합 결성과 8개의 미국 바이오 기업의 나스닥 상장을 이끌며, 아주IB투자는 명실상부한 최고 벤처캐피탈 하우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멀티 스테이지 전문 운용사로 지속 성장

아주IB투자의 성장은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2018년 11월 코스닥 상장에 이어 2019년에는 미국 보스턴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해 '솔라스타벤처스'를 설립하고 실리콘밸리 지점까지 추가로 열었다. 투자 영역 역시 기존 VC와 PEF를 넘어 창업 초기 기업으로 확장했다. 2020년에는 액셀러레이터 사업단을 신설, 2021년 6월에는 '아주 좋은 창업초기 펀드'를 결성하며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 아주IB투자 벤처투자부문 구성원들.
2 코스닥 상장을 알리는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

VC 분야에서 최고로 자리 잡은 아주IB투자는 사모펀드 분야에서도 10개의 PEF 결성, PE 운용 자산 1조 원에 근접하며, 경쟁력 있는 PE 하우스로 거듭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총 운용 자산은 2조 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아주IB투자는 창업 초기부터 Expansion, Growth, Pre/post-IPO, Buyout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투자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대표 멀티 스테이지 대체 투자 전문 운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립 50주년 주요 발자취(1974-2024)

1974.9 국내 VC 1호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 (KTAC) 설립	1976.5 국내 벤처 1호 남해요업 설립 지원	1986.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1987.1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 인가	1988.9 최초 벤처 조합 KTAC 1호 결성
1991.5 한국기술진흥금융 (KTAC)으로 사명 변경	1992.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반납	1996.7 시설대여(리스) 업무 인가	1998.2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등록	1999.8 기보캐피탈로 사명 변경
2006.2 최초 PEF 결성	2008.10 아주IB투자로 사명 변경	2013.6 국내 VC 1호 미국 진출, 보스턴 사무소 개소	2013.11 최초 미국 투자 전문 펀드 결성	2013.12 AUM 1조 원 돌파
2018.11 코스닥 상장	2019.1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2019.7 미국 현지 법인 솔라스타벤처스 설립	2019.8 실리콘밸리 지점 설치	2020.3 액셀러레이터 사업단 출범
2020.8 TIPS 프로그램 운용사로 선정	2020.10 ESG 운영 기준 제정	2020.12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2021.12 국내 VC 최초 TCFD 지지 선언	2021.12 AUM 2조 원 돌파
2024.9 아주IB투자 설립 50주년				

아주의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아주의 '개척자 정신'은 기업 내부의 혁신을 넘어 외부로 향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벤처 산업의 선두 주자 아주 Venture Studio는 제조업 기반의 신규 사업 아이템 외에도 서비스업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혀 다양한 스타트업의 태동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Venture Studio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투자 중인 전도유망한 기업 두 곳을 살펴본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혁신의 선두 주자로!

기업 외부의 혁신을 발굴하다, 아주 Venture Studio

2021년 아주는 기업 외부의 혁신을 발굴하고자 Venture Studio 팀을 신설했다. 아주의 기업 철학인 '개척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Venture Studio 팀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FI)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s, SI)로서 아주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스타트업을 통해 기존 계열사의 성장을 지원 하는 동시에 그룹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한다.

그렇다면 아주의 투자 기준은 무엇일까? 초기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시장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유의미한 전략적 성과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기에는 정량적 지표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아주는 아이디어의 혁신성, 팀의 전문성, 산업의 매력도 같은 정성적 지표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 주체가 되는 창업자의 역량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태도, 투명한 경영 철학, 전문성 그리고 열정이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주는 선정된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에 관한 고민(인사, 재무관리 등) 상담과 주주 간담회 준비를 지원하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중장기 전략 설정을 도와준다. 또한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를 소개하고 후속 투자 유치에 직접 폴로온(follow-on) 투자를 하거나 벤처캐피탈 등 다른 투자자와의 연결을 통해 시장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 내로의 서비스 도입이 가능한 경우,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경험해 소비자 레퍼런스와 피드백을 공유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운영 위원회나 주주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거나 스타트업의 필요에 맞춰 수시로 이루어진다.



투자 생태계를 이끄는 아주만의 투자 기준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투자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22년 하반기부터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유동성이 줄어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단순히 사용자 수를 늘린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고, 대신 매출이 탄탄하거나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아주는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비즈니스 모델의 정교성과 수익 창출 역량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창업자의 위기 관리 능력, 소신 있는 경영 철학, 투자자와의 기민한 소통 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매출 및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단기 목표와 함께 스타트업의 장기적 전략과 비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아주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룹 안팎에

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변화하는 시장에서 혁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주는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영역의 근원인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로봇틱스와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을 주요 투자 분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는 Contech TFT를 결성해 신성장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안전 솔루션 기업 '미스릴'을 발굴했다. 미스릴은 능동형 산업 안전 AI 솔루션 '가디언-알파' 제품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산업재해 예방과 ESG 경영에 관심이 높은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아주는 미스릴의 AI 솔루션을 브이샘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주는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는 물론, 상생을 도모하며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어디서든 살아보는 세상을 만든다, '리브애니웨어'

2022년 3월 아주컨티뉴엄의 투자를 받은 '리브애니웨어'는 '어디서든 살아보는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 아래 여행자들에게 오래 머물기 좋은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주 컨티뉴엄은 늘어나는 장기 여행 수요에 적절한 숙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행 플랫폼의 틈을 확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재까지 18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견인했으며 5만 2,000명 이상의 여행자가 일주일·보름·한 달 살기를 떠났고 플랫폼에 생생한 후기도 남겼다.

리브애니웨어는 제주와 강원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고객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정은 서울

과 경기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리브애니웨어의 목표는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끔 돕는 데 있다. 실제로 리브애니웨어에서 제공한 숙소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고, 노모와의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는 등 플랫폼은 각 고객에게 맞는 맞춤 안식처를 제공한다. 플랫폼에 쌓인 다양한 여행자들의 따뜻한 후기는 리브애니웨어의 비상에 강한 동력이 된다.

리브애니웨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의 투자는 단순한 자본을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닌다. 아주는 풍부한 경영 경험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투자 파트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리브애니웨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경영의 어려움, 사업적 고민이 있을 때 아주 Venture Studio 팀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정표가 된다.

한국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미국으로, 아주 컨티뉴엄의 '보람케어'

'보람케어'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프리미엄 산후조리 브랜드로, 출산 후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여정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최초의 산후조리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2년 7월 Aju Continuum US LLC의 투자 이후 산후 회복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비전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창업 첫해에 64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보람케어는 두 번째 해에 240만 달러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간 360만 명이 출산하는 미국의 산후조리 시장은 그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OECD 국가 중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산모 5명 중 1명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 더욱이 고통

출산이 늘고 입원 기간이 짧아지면서 더 나은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절실했다. 보람케어는 업계 선구자로서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미국 전역에 알리고 회복 과정을 정상화함으로써 산후조리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Aju Continuum US LLC는 보람케어가 한국의 선진화된 산후조리 체계를 미국에 구현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의 우수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제공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보람케어는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는 물론, 미국 내 호텔 운영사들이 포함된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링크를 걸어 양 국가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아주의 투자는 이와 같은 이중 접근을 용이하게 해 한국과 미국의 호텔 및 산후조리업계에서 보람케어만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보람케어는 2022년 5월 5성급 호텔 더 랭엄 뉴욕 피프스 애비뉴에 첫 지점을 냈고 현재는 파크 레인 호텔에서 보람 산후조리원(Boram Postnatal Retreat)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LA를 비롯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지점을 열어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할 계획이다.



- 1 리브애니웨어는 여행자에게 긴 쉼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준다.
- 2 보람케어의 산후조리팀은 정식 간호사(RN)에서 공인 돌라(doula)에 이르기까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3 보람케어 입주시 제공하는 산모용 회복 키트.
- 4 보람케어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토플슨 호텔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모와 가족들에게 최상의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AJU news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다시 뜨겁게 미래로!”

아주 창립 64주년 기념식

아주



아주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8월 30일 오후 6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5층 연회장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문규영 회장님을 비롯해 각 사 CEO와 전자재 임원진, 2024년 신입 임원과 '2024 아주TEAM스타 선수권대회'(이하 '팀스타') 종목별 수상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념식은 기념의 의미를 넘어 행복한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주에게 아주가

아주 창립 64주년 기념식의 첫 순서로 각 계열사 구성원들이 보낸 축하 영상이 연단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자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아주산업 아산사업소부터 아주 미안마의 인사까지 10분 남짓의 영상 속에는 아주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나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아주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타인에게 받는 인사가 아닌 아주가 아주에게 전하는 응원과 감사는 감동을 배로 만들었다.

'우리'였기에 가능한 팀스타 그리고 아주의 오늘

영상을 통해 행복의 기운을 전해 받은 기념식은 올해로 3년째 진행된 팀스타 시상식으로 순서를 이어갔다. 각 수상 팀에 상패와 꽃다발을 직

접 건넨 문규영 회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수상 소감을 경청한 후 창립 기념 인사를 건넸다. 문규영 회장님은 “우리는 항상 나은 미래를 만들고, 보다 나은 미래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가는 기업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도 이런 아주를 만드는 데 모두가 참여해주길 바랍니다”라며 오랜 기간 아주를 지킨 가치를 ‘우리’임을 강조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아주 창립 64주년 기념식

축하를 받고, 축하를 건네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아주 창립 64주년 기념식. 케이크 촛불 끄기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64'란 숫자가 꽃힌 케이크가 환하게 빛나는 순간 구성원 모두는 축하 노래를 부르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 엔딩을 장식한 강병덕 아주산업 광명사업서 매니저의 축가와 아주의 역사가 담긴 몽클한 포토 스토리가 연단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서열 팀장은 “아주의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끝인사를 전하며 아주 64주년 창립 기념식의 막을 내렸다.

아주는 이번 팀스타와 함께 다양한 기부 활동을 연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약 3,7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이는 위기 아동 지원, 독립 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여행자의 마음을 보듬은 '旅情(여정)' 상봉터미널 랜드마크, 청남공원 품으로 상봉터미널 육모정 이축 현판 제막식

아주



6월 3일 오후 3시, 38년간 상봉터미널 입구를 지키던 '육모정'을 청남공원으로 옮기는 이축 현판 제막 기념행사(이하 '이축식')가 열렸다. 이날 진행된 이축식에는 문규영 회장님을 비롯해 아주, 신아주, AJ 대표 및 임원 그리고 류경기 중랑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85년 터미널이 개장할 때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육모정은 하루 2만 명이 넘는 터미널 이용객들의 휴식처이자 만남의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욱이 육모정은 아주에게도 그 의미가 깊다. 2014년에 작고한 故 문태식 창업주께서 친필로 현판에 '旅情(여정)'이란 글자를 새기셨기 때문. 정자의 '정(亭)' 자가 아닌 '뜻 정(情)' 자로 쓰인 '旅情(여정)'에는 육모정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여행자의 마음을 보듬고 재회와 석별의 순간에 작은 쉼터이자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던 창업주의 마음이 담겨 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중부 이남 국민들의 서울행 관문 역할을 해오다 2023년 11월 30일 새 단장을 위해 상봉터미널이 문을 달자 육모정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터미널 운영사인 신아주가 중랑구청과 협의를 끝에 지역사회를 향했던 창업주의 뜻을 잇는 한편, 향토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만큼 보존하기로 결정, 청남공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문태식 창업주 타계 10주기로 그가 남긴 '여정'의 가치가 새로운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축식에 참석한 문규영 회장님은 “육모정은 오랜 시간 상봉터미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여행자들의 사연을 간직한 채 더 넓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모정이 계속해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신 신아주 구성원분들과 류경기 중랑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모정과 청남공원이 중랑구의 자랑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축사를 통해 이축의 의미를 전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님은 “육모정은 중랑구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뜻깊은 장소입니다. 큰 결단을 해주신 덕분에 청남공원으로 이전, 故 문태식 명예회장님의 지역사회 공헌 정신도 되새기고, 상봉터미널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청남공원은 중랑행복농장, 유아숲체험장, 모험놀이터, 1.3km의 산책로 등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에 방문하셔서 육모정도 보시고 주위 다른 시설도 함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라고 화답하며, 중랑구민을 대표해 육모정 이전에 힘써준 아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주 & 아주산업,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대장 수상

아주, 아주산업



아주가 2023년에 진행한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모금 캠페인'과 관련된 성금 기부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명예대장' 포장을 받았다. 회원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후원자를 대상으로 대한

적십자사 포상 운영 규정에 따라 수여하는 포장이다. 기부 금액에 따라 6단계로 나뉘 은장부터 최고명예대장까지 수여한다. 누적 기부 금액 300만원 이상부터 유공장을 받을 수 있고, 아주는 약 3억 3,400만 원을 기부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기부한 후원자에게 수여하는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아주는 구성원이 행복하면 고객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하면 이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행복의 선순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아주는 이 핵심 철학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하고 특히 재난 발생 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이룰 계획이다.

아주 비전경영실 커뮤니케이션팀은 "사회적 재난 상황마다 실질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며 "기업의 철학이 단순한 경제적 교류와 성과를 넘어 사회 전체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두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캠페인에 동참해준 아주 전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건설 산업의 모범! 공영해운 평택사업소, '2024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공영해운



공영해운 평택사업소(임선용 사업소장)가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건설의 날'은 국가 및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981년부터 매년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짓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건설 산업의 희망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건설 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을 세운 건설인 111명이 정부 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임선용 공영해운 평택사업소 사업소장은 2023년부터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한편, 같은 해 11월 옹진군 굴업지적과 덕적지적의 바다 모래 채취 허가를 획득, 건설 현장에 양질의 천연 골재를 공급하는 등 건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임선용 사업소장은 "회사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얼떨떨합니다. 무엇보다 제 개인이 아닌 아주산업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의미가 있고, 저희의 활동 하나하나가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공영해운이 바다 골재 세척 사업계의 모범으로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시 한번 질주를! 아주모터스 사업장 이전

아주모터스



아주모터스가 지난 8월 1일, 수원시 원천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정식 오픈했다. 차량 정비 서비스를 기반으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Total Auto Service 기업인 아주모터스는 석 달여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날

정비 인허가까지 모두 마무리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아주모터스는 달라진 사업장 환경만큼 고객들을 만나는 모습에도 변화를 꾀했다. 과감한 투자를 감행해 모든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며 정비의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기존 휠 밸런스 얼라이먼트 교정용 장비를 '3D 휠 밸런스 및 얼라이먼트' 장비로 교체하고 타이어의 좌우와 앞뒤 균형은 물론 마모도, 깊이, 상태까지 한번에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카올라이너'라는 첨단 계측 장비를 통해서도 보다 정확한 수치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서비스 업무 영역 또한 넓어졌다. 기존에는 수원 지역을 포함한 경기 남부 전 지역을 정비 권역으로 두며 쉐보레와 GMC 자동차의 정비 업무를 맡았지만, 새 사업소에서는 캐딜락 차량에 대한 정비 및 사고 차 수리 업무가 가능해졌다.

사업장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식 본부장은 달라진 사업소 모습만큼이나 달라진 구성원들의 실력과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며, 연말에는 캐딜락 수원 전시장을 오픈, 캐딜락 세일즈 사업에도 도전해보고자 준비 중이라고 깜짝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아주모터스는 장비와 구성원들의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꿈터를 따라 일링이는 독서의 물결 '응답하라 작은 도서관! 그림책 릴레이'

아주복지재단



아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주좋은꿈터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북웹사이트 캠페인 '응답하라 작은 도서관! 그림책 릴레이'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그림책 릴레이'는 '다양한 마을 독서 공동체와의 연계로 학부모·시민들의 독서 생활화 기반 조성',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학생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동대문구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중 하나인 꿈터는 '경동 1960 작은 도서관'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응답, 9월 4일과 11일, 25일 등 총 3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은 물결이 하나하나 더해져 파도 치기를 기대한다.

구본창 작가의 '비누 시리즈'가 선물하는 2025 캘린더

아주



다가오는 2025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아주의 탁상용 캘린더가 제작될 예정이다. 2025년 캘린더는 구본창 작가의 '비누 시리즈'와 함께 한다.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비누는 우리를 깨끗히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화시켜 준다. 구본창 작가는 비누처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의 작은 숨소리를 포착해 평범하고 때로는 하찮게 여겨지는 일상이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구본창 작가는 한국 현대사진사를 연 대표 사진작가로, 그의 작품이 담긴 캘린더는 한 해 동안 일상에 스며들어 찰나의 반짝임을 선사할 것이다.

SPECIAL GIFT

〈아주 좋은 날〉 2024년 가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미래로의 여행 A Trip to the Future』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늘 정원, 수상 도시, 친환경 비행기, 테라포밍 시대, 우주 엘리베이터 등 현재의 청소년이 곧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일상 구성구석을 구성하는 과학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분야를 실제 미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며 변화하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스타트업 대표가 돼볼까 합니다』 스타트업 성공 신화가 넘쳐나는 시대, 그러나 공식 발표되는 정부 통계는 창업 5년 뒤 10곳 중 3곳만 겨우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액기스 정보를 담았다. 스타트업 창업 입문 단계부터, 투자 전략, 정부 지원 사업, 성장과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창업가가 꼭 알아야 할 이론과 실무 전 단계를 시간 순서대로 균형 있게 다루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디테일한 정보를 함께 알려준다.

1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독서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상상이 넘치는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끌고 합니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그림책,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 다가올 미래와 스타트업에 관한 애플트리테일즈의 도서를,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선물로 드립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무슨 일이?』 지브리는 현존하는 위대한 애니메이션 제작소 중 하나로 매혹적인 마법 같은 이야기와 살아 숨 쉬는 애니메이션으로 수십 년째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브리의 광팬을 자처하는 이들조차도 지브리 스튜디오의 숨겨진 이야기는 거의 알지 못한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무슨 일이?』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전 작품을 소개하고, 동시에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제작 스토리를 가득 담아 '진 지브리'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정말 지는 골프』 국내 최초로 골프 의학을 도입한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대한골프의학회장인 서경목 교수가 다년간의 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골프 지침서. 골퍼 대부분이 잘못된 연습과 스윙으로 '골프 노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골프를 하고 있다는 사례와 함께, 활력 있는 골프를 타수도 줄여가며 평생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잔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reader's story

매 계절이 바뀔 즈음 잊지 않고 찾아와 바쁘게 달려온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꿀맛 같은 휴식을 주는 〈아주 좋은 날〉과 함께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특히 이번 62번째 만남의 봄 호에서는 inspiration 칼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올바른 지혜를 배울 수 있어 흐뭇했습니다. 장애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장애로 아파하는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두 눈을 번뜩이게 하고 내 귀를 쩡쩡하게 울립니다. 남과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임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춘임 님

처음으로 〈아주 좋은 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보를 우편 신청했고, 읽고 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있는 소식지를 받아 들고 그제야 “아, 내가 신청한 책자가 이제야 왔네” 하면서 바쁜 일상 중에도 독서 욕구가 차올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읽게 되는 독서 편식을 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아주 좋은 날〉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오픈마인드의 ‘밥상머리 대화법’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이들과 하루에 한 번 밥상 앞에서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바쁘게 살고 있고 식사 시간을 통해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엔 이미 늦었지만 이러한 기사를 조금 더 일찍 접했다면 ‘나도 한번 시도해볼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오은라 님